

2 0 1 9 학 년 도 9 평 대 비

선별 작품 정리본

현대운문

유대종

큰울림 국어연구소

현대운문 목차

1. 한용운, 「알 수 없어요」
2. 박재삼, 「흥부 부부상」
3.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씨봉방」
4. 이용악, 「다리 위에서」
5. 고재종, 「세한도」
6. 정진규, 「감자 먹는 사람들- 삽질소리」
7. 이성부, 「누룩」
8. 이용악, 「그리움」
9. 곽재구, 「전장포 아리랑」
10. 신경림, 「고향길」
11. 윤동주, 「또 다른 고향」
12. 김소월, 「집 생각」

[작품 특징] 자연 현상에 관심을 ‘누구’라는 절대적 존재와 연결하며, 마지막에 자신의 의지로 승화하는 내용이 담긴 작품.

[중요도] 중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

O / X 퀴즈

01.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 전체에 통일감을 드러내고 있다. (O , X)
02. ‘누구’는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는 대상이다. (O , X)
03. 절대자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O , X)
04. 각 행마다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의 비애감을 더하고 있다. (O , X)
05.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 얻는 흥취를 드러내어 자연 친화적 태도를 표출하고 있다. (O , X)
06. 역설적 표현을 통해 구도자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O , X)
07. 음성 상징어를 통해 화자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 , X)
08. 소재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O , X)
09. 독백체와 대화체를 교차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10. ‘푸른 하늘’은 화자와 ‘누구’ 사이의 만남을 가로막는 번뇌와도 같은 것이군. (O , X)

1 표현상의 특징 정리하기

- ①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 예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② 색채어를 통해 대상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예 검은 구름, 푸른 하늘, 푸른 이끼
- ③ 음성 상징어를 통해 대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예 언뜻언뜻, 구비구비(굽이굽이)
- ④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 ㉠ 시각적 이미지 : 검은 구름, 푸른 하늘 등
 - ㉡ 후각적 이미지 : 알 수 없는 향기
 - ㉢ 청각적 이미지 : 작은 시내, 노래
- ⑤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 예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 ⑥ 비유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다.
 - ㉠ 은유적 표현 : 밤, 약한 등불 등
 - ㉡ 직유적 표현 : 연꽃 같은 발꿈치, 옥 같은 손 등
 - ㉢ 의인화된 표현 : 누구의 얼굴, 누구의 입김 등
- ⑦ 경어체를 통해 화자의 공손함이 드러난다. (하십시오체)
 - 예 발자취입니까, 얼굴입니까, 입김입니까, 노래입니까, 시입니까, 됩니다, 등불입니까
- ⑧ 의문형 어미가 나타나 있다.
 - 예 -까

2 중요 내용 정리하기

- ①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는 역설적 표현이다. 소멸된 대상이 다시 생명을 갖는 모순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구절인데, 임을 생각하는 화자의 의지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② ‘가이없는 바다’와 ‘끝없는 하늘’이란 구절에는 ‘무한하다’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 ③ ‘지리한 장마’와 ‘무서운 검은 구름’은 부정적인 현실과 관련되며, 이속에서 볼 수 있는 ‘푸른 하늘’은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 ④ ‘오동잎’과 ‘푸른 하늘’, ‘알 수 없는 향기’, ‘작은 시내’, 그리고 ‘저녁놀’을 통해 ‘누구’의 정체를 유추하고 있다.
- ⑤ ‘약한 등불’은 화자를 의미하며 연약하지만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다. 또한 화자는 그칠 줄을 모르고 끊임없이 ‘누구’를 지키려는 희생정신이 강한 사람이기도 하다.

내용 이해하기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이 하늘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그림.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비유적 표현이 나타남.

해역 오동잎이 바람도 없는 공중에서 조용히 떨어지고 있다. 화자는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걸어서 그 잎을 떨어뜨렸을까?’를 고민하며 그 모습을 ‘발자취’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여기서 더 깊게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화자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으며 자연물을 통해 그 궁금증을 풀어내고 있다. 그 존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다가온다. 우리는 ‘누구’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남긴 자취’를 보고 깨닫게 된다. 그 존재는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읽힌다. ‘하나님, 절대자, 부처님, 조국’ 어떤 것이어도 상관이 없다. 화자는 이 ‘누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된다. 학생들은 이러한 표현이 나올 때 많이 당황한다. 상징적인 표현이 많을 때는 화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면 쉽다. 즉, ‘화자는 오동잎을 누구의 발자취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만 해석하면 된다.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물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푸른 하늘’과 대비되는 이미지를 담고 있음. ‘푸른 하늘’과 대비되는 이미지를 담고 있음.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의인화된 표현이 나타남.

해역 이 장면에서는 ‘오동잎’에서 ‘하늘’로 관심을 옮겨 말하고 있다. ‘지루한 장마, 무서운 검은 구름’ 모두 ‘푸른 하늘’과 대비되는 대상들이다. 화자는 이곳에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에 관심을 보이며, 이 역시 ‘누구의 얼굴’이냐며 묻고 있다. 학생들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화자는 푸른 하늘을 누구의 얼굴로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의 고요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냄.

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누구’를 알아차림. ‘향기’를 ‘입김’으로 파악하고 있음.

해역 이 장면에서는 ‘옛 탑’이라는 말을 통해 고즈넉한(고요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꽃도 없는 깊은 곳에 이끼가 긴 나무, 옛 탑이 있는 장소이다. 화자는 이곳에서 알 수 없는 향기를 맡는데,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역시 ‘누구의 입김’이냐고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에서 ‘시간적 확대’와 ‘공간적 확대’까지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 평범한 학생들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화자는 이번에 옛 탑 위의 고요한 하늘 아래에서 향기를 맡고 있고, 이것을 누구의 입김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
‘저음’을 알 수 없다는 의미임. 시냇물의 소리를 ‘노래’로 표현하고 있음.

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여러 굽이로 구부러지는 모양.

[작품 특징] 가난한 현실을 웃음으로 극복한, '흥부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주목한 작품.

[중요도] 중

흥부 부부가 박 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들어 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 면(面)들아.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면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本)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 박재삼, 「흥부 부부상」 -

O / X 퀴즈

01. 흥부 부부의 웃음은 '박덩이'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웃음일 것이다. (O , X)
02. '황금 벼이삭'을 거부하는 흥부 부부를 통해 남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다. (O , X)
03. 흥부 부부의 문제점을 나열하여 그들이 서로에게 행하는 연민의 모순성을 드러내고 있다. (O , X)
04. '거울 면'은 흥부 부부의 얼굴을 의미하며 이들은 서로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O , X)
05. '구슬'은 시적 대상이 시적 화자에게 보내는 위로의 표현이다. (O , X)
06. 비유를 통해 시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O , X)
07. 물질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O , X)
08. '없는 떡방아 소리'를 통해 흥부 부부의 가난한 처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 (O , X)
09. '그것은 확실히 문제'라는 것은 흥부 부부가 서로에게 가진 태도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O , X)

1 표현상의 특징 정리하기

- ① 고전 소설의 인물을 차용하였다.
예 흥부 부부
-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예 금이 문제리, /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 ③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예 떡방아 소리
- ④ 은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예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니
- ⑤ 명령형 표현을 통해 대상에 주목하고 있다.
예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본(本)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 ⑥ 돈호법을 통해 대상을 부르고 있다.
예 거울 면(面)들아

2 중요 내용 정리하기

- ① ‘금’과 ‘황금 벼이삭’은 풍족한 삶과 관련이 있다. 이와 달리 ‘없는 떡방아 소리’와 ‘손발 닳은 처지’는 가난한 삶과 관련이 있다.
- ②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는 단정적 어조로 ‘흥부 부부의 긍정적인 삶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는 구절이다.
- ③ ‘거울 면’은 서로의 얼굴을 의미하며 ‘거울’이란 시어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가 똑같은 정도로 닳았다는 의미를 함의한다. 즉 긍정적 자세가 똑 닳았다는 의미이다.
- ④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니’의 ‘구슬’은 눈물을 의미한다. ‘서로 나누었다’는 태도에서 서로를 연민하는 상황을 읽을 수 있다.
- ⑤ ‘본(本) 웃음’은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짓는 웃음이다.

내용 이해하기

흥부 부부가 박 덩이를 사이하고
고전 소설의 인물을 차용한 구절.

가르기 전에 건넌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그들의 웃음에 주목하고 있음.

금이 문제리.
금이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임.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
황금 벼이삭이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임.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웃음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주목하고 있음.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화자는 가난하지만 그들의 건강한 정신에 주목하고 있음.

해역 ‘흥부 부부’와 ‘웃음살’에 주목해야 하는 장면이다. ‘흥부 부부’는 우리 고전에서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인물을 상징한다. ‘박 덩이’는 선한 인물에게 주는 복으로 그려지는데, 주목해야 할 대상은 ‘박 덩이’가 아닌 그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웃음살’에 있다.

화자는 ‘금이 문제리, /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라고 말한다. 이는 ‘금’과 ‘황금 벼이삭’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보통 ‘문제다’라는 말을 부정적인 상황과 연결지어 말하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세부적인 문장, 표현에 주목하면 실수를 하기 쉽다. 이 부분을 읽을 때는 ‘그것이 확실히 중요하다’ 정도로 읽어주면 된다. 즉, 흥부 부부의 웃음살에 화자가 긍정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웃음’에 계속 주목하고 있다. ‘반짝이다’, ‘정갈하다’ 모두 아름다운 표현들이다. 화자는 단정적 어조로 ‘그것(=웃음)이 확실히 문제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화자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는 않지만, 서로에게 웃음을 건네는 그들의 건강한 정신에 주목한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가난한 삶을 의미함. ①

있는 듯이 들어 내고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가난한 삶을 의미함. ②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 면(面)들아.**
서로의 얼굴을 ‘거울’에 빗댄 표현임.

해역 ‘없는 떡방아 소리’와 ‘손발 닳은 처지’는 그들의 가난한 삶을 보여주는 근거이다. 그러나 그 둘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간다.

학생들도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그들의 가난한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건네는 건강한 정신’에 주목하길 바란다.

웃다가 서로 불쌍해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는 장면이 나타남.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니.

눈물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구절임.

그러다 금시

절로 면(面)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러이며

얼굴을 의미함.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서로 부끄러워함.

면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깜짝 놀라 뚝을 갑자기 떠는 듯이 움직임.

서로 소스라쳐

본(本)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힘든 현실을 극복한 후 지은 웃음임.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가난한 삶의 아픔을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극복하자는 의미임.

해석

‘홍부 부부’는 마냥 웃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을 직시하고 있다. ‘불쌍해’라는 말과 웃다가 부끄러워하는 상황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연민을 느끼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다시 ‘본 웃음의 물살’을 통해 그 아픔을 이겨내고 있다. 이를 다른 말로 ‘극복’이라고 한다.

화자는 다시 한 번 ‘웃는 모습’을 문제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학생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그들의 가난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유념하며 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

- 박재삼, 「홍부 부부상」 -

KEY WORDS

#가난함 #시련과 고난 #긍정적 웃음 #정신적 여유 #낙천

[작품 특징] 시련과 고통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였다가 생각이 전환되어 현실을 의지적으로 극복하는 내용이 담긴 작품.

[중요도] 중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현 샷을 깐,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딜옹배기*에 북덕볼*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찌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각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깨김
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꼭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
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
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
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뭇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
어 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설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였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 딜옹배기 : 질옹배기.

* 북덕볼 : 집이나 풀 따위가 어지럽게 얼크러진 몽탕이에 피운 볼.

* 나뭇손 : 저녁 무렵.

* 갈매나무 : 갈매나무목 갈매나무과의 쌍떡잎식물. 높이 5m 정도의
낙엽 활엽 관목.

O / X 퀴즈

01. 화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하고 있다. (O , X)
02.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O , X)
03. 공간의 이동과 시선의 이동 등을 통해 시상을 전개 하고 있다. (O , X)
04.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O , X)
05.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는다는 것은 상황의 악화 를 암시한다. (O , X)
06.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시적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생긴 화자의 굴종적 태도를 의미한다. (O , X)
07. 소처럼 깨김질하는 것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끊임 없이 한탄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O , X)
08.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의지를 다지는 시적 화자 의 자세가 드러나고 있다. (O , X)
09. 갈매나무는 화자의 지향하는 삶의 자세가 투영된 객관적 상관물이다. (O , X)
010. 침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부분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O , X)

1 표현상의 특징 정리하기

- ① 특정한 어미가 반복되어 리듬감을 자아내고 있다.
예 해매이었다, 붙이었다, 것이었다, 적이며
- ② 촉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촉각 대비도 있음)
예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출고,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 ③ 색채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 허연 문창, 하얀야니 눈
- ④ 화자의 행동이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나타나 있다.
예 이것을 안고 손을 찌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 또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 ⑤ 운명론적인 시각에 따른 내용이 나타나 있다.
예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 ⑥ 하강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예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고
- ⑦ 시적 허용이 나타나 있다.
예 하얀야니
- ⑧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예 쌀랑쌀랑
- ⑨ 시상의 전환이 나타나 있다.
예 부정적인 상황 → 그러나 → 긍정적인 생각으로의 전환(갈매나무)
- ⑩ 계절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예 추위, 싸락눈(겨울)
- ⑪ 토속적인 어휘를 통해 향토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 딜옹배기, 북덕불, 나죠포 등
- ⑫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어 있다.
예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 ⑬ 서간문 형식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제목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서간문은 쉽게 편지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2 중요 내용 정리하기

- ①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와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쌀랑쌀랑 싸락눈이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 모두 겨울이란 계절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자 화자의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는 구절로도 볼 수 있다.
- ②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한다'는 의미는 나 자신도 감당이 안 되어 벅차다는 의미이다.
- ③ '짜깁질한다'는 과거를 되돌아보며 여러 번 성찰한다는 뜻이다.
- ④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한다'는 태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직시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 ⑤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란 초월적인 존재를 의미하며, 운명론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다.
- ⑥ '갈매나무'는 '굳고 정한' 존재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는 대상을 의미한다.(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다)

내용 이해하기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부정적인 상황 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부정적인 상황 ②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부정적인 상황 ③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해매이었다.
부정적인 상황 ④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계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부정적인 상황 ⑤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현 샷을 깐,
박시봉이 주인임.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

한 방에 들어서 전을 붙이었다.
더부살이를 했다.

해역 화자의 상황이 나타나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아내가 없다.
 ②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사라졌다.
 ③ 부모, 동생과 멀리 떨어져 혼자 있다. (보통 가족의 해체로 많이 해석한다)
 ④ 홀로 타지에서 방황하고 있다.
 ⑤ 겨울이다. (바람이 세계 불고, 추위가 심해 온다)
 ⑥ '박시봉'이 주인이 목수네 집에 더부살이를 하였다.
 화자는 가정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곁에 어느 누구도 없다. 홀로 객지에서 방황하고 있다.
 초반에 화자의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 말미에 '긍정적인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 상황에 대한 체념 등과 같은 태도 등이 나타난다. 따라서 앞으로 화자가 어떤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되는지를 유념하여 해석하면 좋겠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출고, 누긋한 방에서,
화자가 있는 공간. 좋지 못한 환경이란 의미임.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자기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미임.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질옹배기. 짚이나 풀 따위가 어지럽게 얼크러진 뭉텅이에 피운 불.

이것을 안고 손을 찌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무의미한 행동으로 무력한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임.

또 문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구르기도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썰김질하는
화자가 겪은 지난날에 대해 되새김한다는 의미임.
 것이었다.

내 가슴이 팍 메어 올 적이며, /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본 이후의 반응들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
화자가 내린 최종 결론. 절망감에 휩싸여 '죽음'을 생각함.
 끼는 것이었다.

해역 이 장면은 화자의 고뇌 위주로 시상이 전개되어 있다. 화자의 고민은 편안한 공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앞선 상황과 마찬가지로 힘겨운 공간에서 시작된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는 화자의 생각이다. 자기 스스로도 감당이 되지 않아 힘겨워하며, 무력한 상태로 하루를 자신의 삶에 대해 여러 번 생각한다. 그럴 때마다의 반응은 '슬픔, 한탄, 부끄러움'이다. 화자는 자신의 절망적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생각하였다.
 '방 안'이란 좁은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결론은 '죽음' 이외는 없다는 것이 이 부분의 핵심이다. 화자의 상태가 극도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캐치하고 다음을 읽어 보자.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이전과 다른 화자의 태도가 나타남. (사상의 전환) (절망적 태도에서 희망으로 바뀜.)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
자기의 삶의 한계에 대해 인지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나타남.

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초월적 존재를 뜻함.(신으로 생각해도 됨.) 운명론적인 시각이 나타나 있음.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해역 화자의 태도가 바뀐 부분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중에서 꼭 해석해야 하는 내용은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라는 내용인데, '신'과 같은 대상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인생은 그들에 의해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이며, 운명에 의해 이끌려 왔다는 의미이다.

그뿐만 아니라 화자는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한다며,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기도 한다.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화자는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운명에 맡기고 있다.

학생들도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놓치지 말고, '초월적 존재'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꼭 캐치하길 바란다.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시간적 흐름이 나타남.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

츄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아까와 달리 점차 마음이 진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줏순*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저녁 무렵.

바깥에 눈이 내림.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바위 옆

어두워 오는데 하이아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갈매나무목 갈매나무과의 쌍떡잎식물.
높이 5m 정도의 낙엽 활엽 관목.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 궁극적으로 닮고 싶은 대상.
한탄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담긴 상징적 대상.

었다.

해역 이 장면은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에서 제일 중요한 소재가 나오기 때문에 꼭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먼저 화자의 심정이 점차 진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지러운 마음, 슬픔, 한탄' 모두 화자를 움아매고 힘들게 만드는 대상이다. 그런 것들이 점차 '가라앉는'다며 심적 갈등이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궁극적인 해소는 아니지만, 이전과 다르게 안정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다.

바깥은 여전히 춥고 힘들다. 그러나 화자는 이런 저녁에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한다. 갈매나무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① 먼 산 뒷옆에 바위 옆에 외로이 서 있다.
- ② 어두워 오는데 하얀 눈을 맞고 있다.
- ③ 마른 잎새를 지니고 있다.
- ④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고 있다.

화자와 마찬가지로 고통과 시련 속에 있으나, 이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화자와 유사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 '갈매나무'를 닮고 싶은 것이라 생각된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출발하였지만, 마지막은 다행히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었다. 학생들도 이 점을 고려하여 접근하면 좋겠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KEY WORDS

#부정적인 현실 #고난과 시련 #희망 #의지 #운명

[작품 특징] 과거를 회상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나타난 작품.

[중요도] 중

바람이 거센 밤이면
 몇 번이고 꺼지는 네모난 장명등을
 꺾꽂이 밟고 서서 몇 번이고 새로 밝힐 때
 누나는
 별 많은 밤이 되어 무섭다고 했다

국숫집 찾아가는 다리 위에서
 문득 그리워지는
 누나도 나도 어려선 국숫집 아이

단오도 설도 아닌 풀벌레 우는 가을철
 단 하루
 아버지의 제삿날만 일을 쉬고
 어른처럼 곡을 했다

- 이용악, 「다리 위에서」 -

O / X 퀴즈

01. 화자가 유년 시절 단 하루만 쉬고 일을 했다는 것에서 과거의 고단함을 엿볼 수 있다. (O , X)
02. 「다리」는 화자가 유년을 회상하게 하는 공간적 배경이다. (O , X)
03. 「어른처럼」 곡을 한 것은 곡을 할 때에 이미 과거를 그리워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암시하는 구절이다. (O , X)
04. 특정 시어를 통해 계절감을 조성하여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O , X)
05. 국숫집을 찾아가는 행동은 어렸을 때의 화자가 누나에게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모색이다. (O , X)

1 표현상의 특징 정리하기

- ① 과거 회상이 나타나 있다.
예 누나는 / 별 많은 밤이 되어 무섭다고 했다. 국숫집 찾아가는 다리 위에서 / 문득 그리워지는 / 누나도 나도 어려선 국숫집 아이
- ② 화자가 표면에 나타나 있다.
예 누나도 나도 어려선 국숫집 아이
- ③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예 풀벌레 우는 가을철, 곡을 했다
- ④ 계절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예 풀벌레 우는 가을철
- ⑤ 독백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 중요 내용 정리하기

- ① '바람이 거센 밤'은 부정적인 현실이자 화자와 누나가 겪는 힘겨운 현실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힘겨움을 의미하기도 함.)
- ② '국숫집'은 생계를 위해 힘겨운 생활을 해야 했던 공간과 연결된다.
- ③ '국숫집 아이'는 화자와 누나를 의미한다.
- ④ '다리 위에서' 화자는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다.
- ⑤ '어른처럼 곡을 했다.'는 말에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화자의 아픔이 담겨 있다.
- ⑥ 전반적으로 화자의 슬픈 정서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내용 이해하기

바람이 거센 밤이면
추운 현실을 의미함.

몇 번이고 꺼지는 네모난 장명등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대문 밖이나 처마 끝에 달아 두고 상황이 드러남. 밤에 불을 켜는 등.

괘짝 밟고 서서 몇 번이고 새로 밝힐 때
장명등이 필요한 상황임.

누나는

별 많은 밤이 되어 무섭다고 했다
누나가 무서워하는 대상.

해역 바람이 거세다는 말에서 추운 현실을 읽을 수 있다. 몇 번이고 꺼지는 네모난 장명등을 괘짝을 밟고 서서 몇 번이고 새로 밝혔다.
화자는 유년 시절을 생각하며 당시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화자의 누나는 별이 많은 밤이 되어 무섭다고 했다. 왜 누나가 밤을 두려워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음을 읽어보자.

국숫집 찾아가는 다리 위에서
현재의 상황이 나타남.
(다리 위 : 현재의 공간)

문득 그리워지는

누나도 나도 어려선 국숫집 아이
'국숫집 아이'라는 말에서 힘겹게 살아왔음을 유추해야 함.

해역 국숫집을 찾아가는 다리 위에서 화자는 유년 시절을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있다. 그 당시에 화자와 누나는 국숫집 아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온 것이라 유추가 된다.

단오도 설도 아닌 풀벌레 우는 가을철

단 하루
딱 하루만 쉬었다는 말에서 화자 역시 힘든 현실을 견디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아버지의 제삿날만 일을 쉬고

어른처럼 곡을 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음.

해역 아버지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화자는 이곳에 찾아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애통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화자의 유년 시절은 밤이 무서울 정도로 풍족하지 못하였다.
- ② 어린 나와 누나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분이 곁에 없다. 그래서 누나는 별 많은 밤이 되면 무섭다고 말하는 것이다.
- ③ 화자 역시 힘들고 고단하게 살고 있다.

④ 그러나 아버지의 제삿날만 되면 일을 쉬고 어른처럼 곡을 했다고 말을 한다. 어린이처럼 울고 싶지만, '어른'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자.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감정이나 사랑하는 감정은 보편적인 감정이므로 화자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상황, 그리워하는 상황, 슬퍼하는 상황 모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이용악, 「다리 위에서」 -

KEY WORDS

#제사 #통곡 #아버지를_향한_사랑 #그리움

[작품 특징] 절망적인 농촌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내용이 담긴 작품.

[중요도] 중

날로 기우듬해 가는 마을회관 옆
청솔 한 그루 곳곳이 서 있다.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집집의 새앙쥐까지 깨우던 회관 옆,
그 등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그 회관 들창 거덜 내는 댕바람 때마다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거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동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그러나
저기 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그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서러움조차 잘 걸러 내어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보아라.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까막까지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저 동녘에선 꼭두서니빛 타오른다.

- 고재중, 「세한도」 -

O / X 퀴즈

01. '청솔'은 부정적 상황을 극복해 내고자 하는 의지가 투영된 사물이다. (O , X)
02. '등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은 앰프 방송으로 인해 망가진 농촌을 상징한다. (O , X)
03. '댕바람'은 '푸른 숨결'로 연결되어 화자의 흥취를 부여하는 대상으로 기능한다. (O , X)
04. '까막까지 얼어 죽는 아침'은 시련의 때이며 화자는 그러한 때에도 긍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O , X)
05. 생산도 새마을도 끊긴 궁벽은 서러움을 야기하지만 이것을 잘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빗질'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O , X)
06. 시상의 전환을 통해 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O , X)
07. '희망의 노예'가 되고 싶은 화자의 갈망이 청솔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O , X)
08. 난장 난 비닐 하우스는 생산이 끊긴 농촌의 상황과 조응하며 화자의 회의적 태도와 연결된다. (O , X)

1 표현상의 특징 정리하기

- 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통해 현장감을 부여한다.
예 감는다, 운다, 타오른다
- ② 과거와 관련된 상황이 나타난다.
예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 집집의 새앙쥐까지 깨우던 회관 옆
- ③ 색채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선명감이 나타난다.
예 청솔 한 그루, 푸른 눈, 푸른 숨결
- ④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 노엽게 운다
- ⑤ 명령문을 통해 특정 대상에 주목하도록 유도하였다.
예 그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보아라
- ⑥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나타나 있다.
예 나는
- ⑦ 상승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예 꼭두서니빛 타오른다
- ⑧ 계절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예 삭바람(북풍)
- ⑨ 과장과 관련된 표현이 있다.
예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 집집의 새앙쥐까지 깨우던 회관 옆
- ⑩ 의인화된 표현을 통해 대상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
예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 ⑪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구절이 나타난다.
예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 집집의 새앙쥐까지 깨우던 회관 옆 / 그 동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2 중요 내용 정리하기

- ① '달로 기우뚱해 가는 마을회관', '그 회관 들창 거덜 내는 댛바람',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과 '난장 난 비닐하우스'는 쇠락한 농촌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구절이다.
- ② '푸른 눈'과 '푸른 숨결'은 청솔을 의미한다.
- ③ '노엽게 운다'는 청솔의 심정은 화자의 심정 또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와 아픔이 이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이장'은 농촌 마을 사람으로 쇠락해 가는 농촌 현실에 아픔을 지닌 사람이다.
- ⑤ '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는 행동', '삭바람마저 빗질하는 행동', '서러움조차 잘 걸러 내는 행동' 모두 절망적인 현실을 이겨내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극복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 ⑥ '희망의 노예'란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이란 의미이다. 따라서 '희망의 노예가 아니라'는 말은 허황되지 않고 이유 없이 희망만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 ⑦ '동녘에선 꼭두서니빛 타오른다'는 말은 새로운 희망이 떠오른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내용 이해하기

날로 기우뚱해 가는 마을회관 옆
 농촌이 점차 쇠락하고 있음을 의미함.

청솔 한 그루 곳곳이 서 있다.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임.

해역 '날로 기우뚱해 가는 마을회관 옆'이라 하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 보면 화자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시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기우뚱해 간다'는 말로 점차 쇠락한 상태에 놓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은 바로 '푸른 소나무'이며, '곳곳이'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리 부정적인 현실이 울지라도 고통에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 위함이라 생각할 수 있다. 전체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 부분은 놓치지 말고 '화자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 해석하였으면 한다.

한때는 앰프 방송 하나로
 과거 농촌의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을 '앰프 방송'을 통해 보여주고 있음.

집집의 새앙쥐까지 깨우던 회관 옆.

그 동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으로

푸른 눈 더욱 못 감는다.
 청솔을 의미함.

해역 화자는 이번에 '앰프 방송'을 언급한다. 앰프 방송은 집에 있는 생쥐를 깨울 만큼 소리가 컸다고 말한다. 앰프 방송이 컸다는 의미는 그만큼 과거 농촌은 지금과 달리 활기찼다는 뜻이다. 그러나 점차 농촌은 쇠락해 갔고, 그로 인해 청솔은 상처를 입어 눈을 감지 못한다고 말한다.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구절이자, '청솔 한 그루'의 슬픔을 알 수 있는 구절이다. 학생들도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과거와 달리 청솔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길 바란다.

그 회관 들창 거덜 내는 뱀바람 때마다
 부정적인 현실에 처한 농촌의 모습

청솔은 또 한바탕 노엽게 운다.
 분노가 나타남.

저기 술만 취하면 앰프를 켜고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이장과 함께.
 청솔과 더불어 농촌 현실에 대한 슬픔을 표출하는 이장의 모습.

해역 해석 이 장면은 앞선 장면과 유사하다. 특이점이 있다면, '이장'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청솔'은 쇠락한 농촌 현실에 분노를 느끼며 슬퍼한다. 이장도 마찬가지다.

절망적 현실을 느끼고 있는 청솔과 이장의 상황을 분석하면 되는 구절이다.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 그러나
 부정적인 현실에 처한 농촌의 모습

저기 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쇠락한 현실을 일으키려는 태도가 나타남.

그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절망적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미가 담겨 있음.

해역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장소'는 사실 희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앞서 말한 내용과 다르다. 먼저, 고장이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는 모습이 나타난다. 아마 주체는 마을 사람들로 보인다. 쇠락한 상태로 농촌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구어 내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다. 쇠락한 농촌에서 곳곳이 버틴 청솔을 보라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말은 힘들어도 버티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세련되게 말을 표현한다면,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희망을 다진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학생들도 이 부분에서 내용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고 있음을 캐치하고, '청솔을 바라보는 태도'에 주목하길 바란다.

그때마다, 삭바람마저 빗질하여
 겨울철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

서러움조차 잘 걸러 내어

푸른 숨결을 풀어내는 청솔 보아라.
 희망의 이미지가 함의되어 있음.

해역 '삭바람'은 겨울에 불어오는 찬 바람으로 보통 고통과 시련으로 해석된다. 화자는 이마저 빗질하고, 서러움을 걸러 내자고 말한다. 즉, 부정적인 현실을 하나씩 극복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푸른 숨결을 풀어낸다'는 말은 이들의 마음에 절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학생들도 '푸른 숨결'이 뜻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꼭 파악하길 바란다.

나는 희망의 노예는 아니거니와
 이유없이 희망만을 외치지 않는다는 의미임.

까막까치 얼어 죽는 이 아침에도
 절망적 현실을 의미함.

저 동녘에선 꼭두서니빛 타고르다.
 희망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구절임.

해역 해석 화자는 이유 없이 희망을 말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희망의 노예'는 근거 없이 희망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허황된 마음이 담겨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화자는 다시 한 번 절망적인 현실인 '까막까치가 얼어 죽는 아침'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 '해가 떠오

른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해'는 곧 희망이며, 절망 속에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인 담긴 소재이다.

전반적으로 주제와 소재가 어렵지 않은 시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손쉽게 접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제목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다. <세한도>라는 제목은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추사 김정희의 문인화인 <세한도>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었는데, <세한도>에는 곳곳하게 서 있는 푸른 소나무가 그려져 있다. 이 구성을 토대로 작품을 창작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 고재중, 「세한도」 -

KEY WORDS

#부정적인 현실 #시련과 고난 #아픔 #희망 #절망

[작품 특징] 가난한 현실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화자와 가족들의 상황이 나타나 있는 작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놓치지 않음)

[중요도] 중상 **NEW**

우리들도 그렇게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먹던 때가 있었다
 불빛 흐린
 언제나 불빛 흐린
 저녁 식탁이
 누구의 손 하나가 잘못 놓여도
 삐걱거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셋째 형만이
 언제고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잘 살아진 굶은 감자알들처럼
 마디 굶은 우리 식구들의 손처럼
 서걱서걱 흙을 파고 나가는
 삽질 소리들을 꿈속에서도 들었다
 누구나 삽질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었다
 새벽에는
 빗줄기가 조금 창문을 두드렸다
 제일 부드러웠다
 새싹들이 돋고 있으리라 믿었다
 오늘은 하루쯤 쉬어도 되리라
 식구들은
 목욕탕엘 가고 싶었다

- 정진규, 「감자 먹는 사람들 - 삽질 소리」 -

O / X 퀴즈

01. 표면에 드러난 시적 화자가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02. 삐걱거리는 저녁 식탁은 형제 간의 갈등을 묘사하는 시구이다. (O , X)
03. 마디 굶은 식구들의 손은 삶의 고단함을 드러내고 있다. (O , X)
04. '빗줄기'는 새싹들을 돋게 하면서 식구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대상이다. (O , X)
05. '타고난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화자의 자족감의 표현이다. (O , X)
06. 독백적이면서도 담담한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O , X)
07. '잘 살아진 감자'는 노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식구들의 결과물이다. (O , X)
08. 우리들은 고단한 삶 속에서도 서로에게 말을 건네며 위로를 하고 있다. (O , X)

1 표현상의 특징 정리하기

- ①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나타나 있다.
예 우리들, 우리 식구들, 우리는
- ② 회고적 어조를 통해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예 우리들도 그렇게 둘러앉아 / 삶은 감자를 먹던 때가 있었다
- ③ 특정 어미를 반복하여 나타내었다.
예 있었다, 빼격거렸다, 앉았다, 들었다, 사람들이었다, 두드렸다, 부드러웠다, 믿었다, 싫었다
- ④ 직유법을 통해 대상을 표현하였다.
예 잘 살아진 굵은 감자알들처럼 /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의 손처럼
- ⑤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상황을 표현하다.
예 서걱서걱
- ⑥ 촉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예 제일 부드러웠다
- ⑦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예 빼격거렸다
- ⑧ 시어의 반복이 나타나 있다.
예 불빛 흐린 / 언제나 불빛 흐린

2 중요 내용 정리하기

- ① ‘삶은 감자’, ‘불빛 흐린’, ‘빼격거렸다’는 화자의 가난한 현실을 보여주는 시어이다.
- ②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화자와 가족들이 하는 노동이 힘겹다는 의미이다.
- ③ ‘셋째 형만이 / 언제나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읽을 수 있다.
- ④ ‘잘 살아진 굵은 감자알들’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현실 속에서 먹는 음식을 뜻한다. 또한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의 손’과 유사한 이미지임을 보여주어 고된 노동과 관련 지을 수도 있다.
- ⑤ ‘타고난 사람들’이란 이미 정해진 운명처럼 가난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속에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 ⑥ ‘새싹들이 돌고 있으리라 믿었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임에 불구하고 희망을 기대했다는 의미이다.
- ⑦ ‘목욕탕’과 ‘빗줄기’는 고된 노동에서 벗어난 휴식과 관련이 깊다.

내용 이해하기

우리들도 그렇게 둘러앉아

화자가 표면에 나타나 있음.

삶은 감자를 먹던 때가 있었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음.

해석 화자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그렇게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먹던 때가 있다’고 말이다. 이 시가 고흐의 작품인 〈감자 먹는 사람들〉을 모티브로 쓴 것임을 안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도 같이 해석이 된다. 화자는 고흐의 그림을 매개로 과거를 떠올리고 있고, 우리들도 이 그림처럼 삶은 감자를 먹던 때가 있다며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있다.

불빛 흐린

청명하지 못한 불빛임을 인지해야 함.(어두움)

언제나 불빛 흐린

저녁 식탁이

누구의 손 하나가 잘못 놓여도

빼격거렸다

가난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해석 이번에는 ‘저녁 식탁’을 말하고 있다. 저녁 식탁 주변 풍경은 다음과 같다.

- ① 불빛이 흐리다.
- ② 누구의 손 하나가 잘못 놓여도 빼격거린다. (즉, 정상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화자가 과거에 가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하는 상황

다만 셋째 형만이

언제고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셋째 형의 마음이 나타남.

해석 화자와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힘들고 고달픈 현실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셋째 형’은 이 가난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지 언제나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한다. 이 장면 역시 화자가 과거에 가난하였다는 정보를 보여주는 위함이다.

잘 살아진 굵은 감자알들처럼

노동이 고통스럽다는 의미임.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의 손처럼

서걱서걱 흙을 파고 나가는

삼질 소리들을 꿈속에서도 들었다
 노동의 소리를 의미함.

누구나 삼질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숙명으로 여기는 태도가 나타남.

해역 이 부분은 화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고된 노동에 시달렸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다. '잘 살아진 굵은 감자알들'은 마치 맛있어 보이는 듯하지만,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의 손'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는 상황'이나 '부정적인 현실'로 읽어야 한다.

심지어 '삼질 소리'는 '꿈속'에서도 들릴 정도이다. 그만큼 노동이 고되고 힘들다는 의미이다. 화자는 '누구나 삼질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정하다가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라며 자신들에게 놓인 숙명을 받아들이고 있다. 가난함을 좋아서 수용하는 사람은 없다. '타고난 사람들'이란 말은 곧 부정적 수용 즉, 체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충분히 학생들이라면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이란 말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해석하였으면 한다.

새벽에는 / 빗줄기가 조금 창문을 두드렸다
 자연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빗줄기'의 이미지는 뒤의 '새싹들'과 연결됨.

제일 부드러웠다

새싹들이 돌고 있으리라 믿었다
 가난한 현실임에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음.

오늘은 하루쯤 쉬어도 되리라

식구들은 / 목욕탕엘 가고 싶었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함.

해역 새벽에 비가 내렸다. 화자와 가족들이 하는 노동은 '바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비가 내렸다는 의미는 바깥 노동을 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잠시나마 화자와 가족들에게 '휴식시간'을 제공한 셈이다.

이 시를 읽으며 좀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 '가난함'에 대해 불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화자는 '새싹들이 돌고 있으리라 믿었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쯤 쉬어도 되지 않겠냐며 달콤한 휴식을 즐기고 있다. '목욕탕'도 아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가 되는데, 목욕탕 역시 돈이 들기 때문에 바람만 밝히는 것 같다.

해당 시는 학생들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화자의 상황은 어떠한지, 어떤 생각을 지니는지를 중심으로 꼭 확인할 것!

KEY WORDS

#가난한 현실 #고통 #체념 #희망 #휴식

- 정진규, 「감자 먹는 사람들 - 삼질 소리」 -

[작품 특징] '누룩'이 '술'되는 과정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작품.

[중요도] 중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지 혼자 무력(無力)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아 지금 감춰 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 이성부, 「누룩」 -

O / X 퀴즈

01. 의인화를 통해 누룩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O , X)
02. '만나', '여럿이서도', '함께' 등의 시어들을 통해 연대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O , X)
03.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대상의 희생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O , X)
04. 화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모습이 '해 솟는 얼굴'과 '춤'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O , X)
05.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연대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O , X)
06. 누룩이 으개어지면서 자신을 완성하는 과정을 위해서는 알맞은 조건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O , X)
07. '바람'은 시적 대상이 연대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시련을 상징한다. (O , X)

1 표현상의 특징 정리하기

- ① 의문형 어미를 반복하여 나타내었다.
예 알겠느냐, 들었느냐, 보았느냐
- ②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예 냄새 퍼지나니
- ③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예 밤새도록 우는 울음
- ④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예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 해 솟는 얼굴도 되는
- ⑤ 감탄사를 통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예 아
- ⑥ 역설적인 표현이 나타나 있다.
예 해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 ⑦ 부정적인 현실이 나타나 있다.
예 밤새도록 우는 울음, 엄동설한, 무르팍 으깨져도
- ⑧ 연대 의식이 나타나 있다.
예 지 혼자서 찾는 길이 /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덩달아서 함께 끊는 마음

2 중요 내용 정리하기

- ① '누룩'이 '술'이 되는 과정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 ② '알맞은 바람'과 '우리 고향 좋은 물'은 '누룩'이 '술'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긍정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 ③ '밤새도록 우는 울음', '무르팍 으깨져도', '속 깊이 쌓이는데',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에는 '누룩'의 희생과 아픔이 담겨 있다.
- ④ '지 혼자서 찾는 길이 / 여럿이서도 찾는 길'이란 개인의 소망이 결국 모두의 소망이란 의미로, 연대 의식을 강조하는 구절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춤', '기쁨', '해 솟는 얼굴'은 누룩이 술이 되는 과정에서 얻는 긍정적인 가치로 화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대상이다.
- ⑥ '해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는 역설적 표현으로, 생성은 결국 '죽음'이란 소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⑦ '더운 가슴', '꽃피는 가슴'은 '술'이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있다.

내용 이해하기

누룩 한 덩이가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임.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지 혼자 무력(無力)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누룩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임. 이때 부대끼다가는 갈등을 겪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음.

어디 한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

누룩이 가지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갖추어 진 환경.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해역 화자는 '누룩'에 주목하고 있다. '누룩'이란 '술을 빚는 데 쓰는 발효제'를 의미한다. 화자는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며 묻고 있는데, 아직 이에 대해 답을 하기는 어렵다.

화자는 '누룩'이 혼자 무력함으로 부대끼고 어디 한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고 말한다. '무력'이란 '힘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 구절에서는 '누룩' 자체는 힘이 없는 존재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그런데, 이때 '알맞은 바람'을 만난다고 말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더운 가슴', '사랑'은 '알맞은 바람'을 만났을 때 '누룩'이 가지게 되는 것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학생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의문형 어미에 주목하기보다는 '누룩'이 혼자서 무력하다, '알맞은 바람'을 만났다, 사랑을 지니게 되는구나'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부정적인 현실 ①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연대의식이 나타남.

밝게 빛나는 존재임. 시련에 대한 저항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음.

엄동설한 갈벌은 알고 있나니

부정적인 현실 ②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부정적인 현실 ③ 힘든 현실이 지속됨에도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의미함.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해역 이 구절은 상당히 상징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와 닿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며 해석해야 한다. 먼저, '밤새도록 우는 울음', '엄동설한', '무르팍 으깨져도'는 모두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이 지속되어도 '꽃피는 가슴'이 있고, '그 가슴의 울림'이 있다고 말한다. 즉, 누룩이 겪는 시련과 고통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희망에 대해 언급한 구절이다. 또한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이라며 연대 의식도 내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도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구나' 정도만 해석해도 무리는 없다.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술이 되기 위한 누룩의 기다림과 인내심이 나타남.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해역 해당 시를 해석하면서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누룩이 술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은 '누룩이 술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이다.

학생들도 이 부분은 '누룩이 술이 되기 위해 기다리는 태도를 지니고 있구나' 정도만 해석하면 된다.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누룩'의 희생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알맞은 바람'과 유사한 환경

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연대 의식이 나타남.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누룩'이 긍정적인 요소가 됨을 강조하고 있음.

해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해역 이 구절에서 누룩은 '죽어 썩어 문드러진다' 즉, 누룩이 술이 되기 위해 발효되었다고 해석하면 된다. 발효된 누룩과 '우리 고향 좋은 물'이 서로 만나면 마음이 함께 끓는다며 희망을 노래한다. '춤, 기쁨, 해 솟는 얼굴'도 모두 이 '희망'과 관련된 태도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누룩의 '죽음'이 '기쁨'이 된다는 역설적 표현도 인지해야 한다. '소멸'이 곧 '생성'이 된다는 의미로 누군가의 희생이 긍정적인 현실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은 '역설적 표현'까지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누룩이 '술'이 되는 과정이 기쁘다" 정도만 해석해도 된다.

아 지금 감춰 둔 누룩 뜨나니

숨겨져 있었음을 표현한 구절임.

냄새 퍼지나니

해역 이 장면은 누룩이 점차 술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을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미 어느 정도 해석했기 때문에 학생들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누룩'은 '술'에 비해 주목해서 볼 만큼 중요한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화자는 그 사소한 누룩이 술이 되는 것에 주목해 그 과정에서 고통, 연대, 기쁨 등을 찾아내 구체적으로 표현해냈다. 여기에 이 작품의 의의가 있다.

(참고로 작가가 대표적인 민중시인인 이성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누룩'은 민중으로, '엄동설한'은 억압적인 사회로 읽어, 부정적인 현실을 자신의 희생과 연대를 통해 극복해 낸다는 주제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은 외재적 해석이기 때문에 <보기>에서 이러한 힌트를 제공하는지 참고할 것!)

- 이성부, 「누룩」 -

KEYWORDS

#누룩 #고통 #기쁨 #연대 #억압 #부정적인 현실

[작품 특징] 고향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담긴 작품.

[중요도] 상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O / X 퀴즈

01.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O , X)
02. 어둠과 추위의 이미지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환기하고 있다. (O , X)
03. 화자가 있는 곳과 ‘너’가 있는 곳을 병치시켜 역설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O , X)
04. 사랑하는 대상에 향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O , X)
05.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완결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얻어 내고 있다. (O , X)
06. 작은 마을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가야 나오기 때문에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이다. (O , X)
07. ‘함박눈’은 잉크병 얼어드는 밤을 조성하는 시어로 부정적 가치를 환기한다. (O , X)

1 표현상의 특징 정리하기

- ① 계절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예 눈,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
- ② 수미 상관을 통해 시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예 눈이 오는가 북쪽엔 /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③ 의문형 어미가 나타나 있다.
예 내리는가
- ④ 음성상징어가 나타나 있다.
예 느릿느릿
- ⑤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색채 대비도 가능)
예 검은 지붕, 밤, 눈

2 중요 내용 정리하기

- ① ‘함박눈’과 ‘복된 눈’에서 알 수 있다시피 화자는 고향을 포근하고 따뜻한 공간이길 소망하고 있다.
- ②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강조되어 나타나 있다.
- ③ ‘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가’는 상황과 ‘산과 산 사이’라는 구절에서 ‘북쪽’에 있는 고향이 외진 곳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서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읽을 수 있다.
- ⑤ ‘북쪽’, ‘작은 마을’은 모두 고향과 관련이 있는 시어이다.
- ⑥ ‘너’는 청자뿐만 아니라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의미한다.

내용 이해하기

눈이 오는가 북쪽엔

화자는 고향에 눈이 오는지 궁금해 하고 있음.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를 지님.

해역 화자는 궁금해 하고 있다. ‘북쪽’에 눈이 오는지, 함박눈이 쏟아져 내리는지 말이다. 제목을 고려해 볼 때, 이곳에 화자가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도 이 부분을 읽을 때, ‘북쪽’이란 위치에 왜 관심을 보이는지, ‘눈이 오는지’를 왜 궁금해 하는지, 화자의 의도를 고려하며 다음 구절을 읽으면 좋을 듯하다.

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가

상상을 통해 떠나왔던 철길을 생각하고 있음.

백무선 철길 위에

함경북도 백암(白巖)에서 두만강의 삼림 지대를 가로질러 무산(茂山)에 이르는 협궤 철도. 1944년에 개통되었다.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해역 화자는 이번에 ‘철길’을 생각하고 있다. 그 철길은 힘한 벼랑을 돌아간다. 가는 길이 순탄치 않다는 의미이다. 철길 위에 달리는 화물차는 밤새 느릿느릿 달린다고 하며 상황을 그리고 있다. 학생들도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사실적 정보’를 위주로 파악하면 된다. 즉, ‘백무선 철길은 힘한 벼랑을 돌아간다. 화물차는 밤새 느리게 달린다’ 이 정도만 파악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가족을 의미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북쪽에 있음. 화자의 긍정적인 생각이 반영된 시어임. ‘함박눈’과 연결됨.

해역 화자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다. ‘산과 산 사이’라는 시어에서 가족들이 사는 곳이 인적이 드문 곳을 파악할 수 있다. 화자는 그곳에 ‘복된 눈’이 내리느냐며 ‘복된’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화자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그들이 있는 곳에 행복이 깃들어 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학생들도 이 부분을 읽을 때는 평범한 눈이 아닌 ‘복된 눈’이라 언급한 화자의 생각을 고려하며 해석했으면 한다.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매우 추운 날씨라는 의미임.

어찌자고 잠을 깨어

가족들이 걱정되어 잠에서 깬.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가족이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음. 감정이 고조됨.

해석 화자는 현재 매우 추운 곳에 있는 듯하다. 잠을 깨었다는 말에서 때는 밤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잠에서 깨어 가족과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반복을 통해 화자의 애절함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해석 화자는 다시 한 번 앞에서 말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함박눈'은 '복된 눈'과 연결되어 추운 겨울을 상징하지 않는다. 가족이 있는 곳, 포근한 곳, 복이 있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화자는 눈을 통해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용악, 「그리움」 -

KEY WORDS

#고향 #그리움 #북쪽 #추움 #겨울 #함박눈

[작품 특징] 우리 민족이 지닌 슬픔과 그것을 위로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나타난 작품.

[중요도] 중상 **NEW**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웬 눈물방울 이리 많은지
 각이도 송이도 지나 안마도 가면서
 반짝이는 반짝이는 우리나라 눈물 보았네
 보았네 보았네 우리나라 사랑 보았네
 재원도 부남도 지나 낙월도 흐르면서
 한 오천 년 떠밀려 이 바다에 쫓기운
 자그맣고 슬픈 우리나라 사랑들 보았네
 꼬막 껍질 속 누운 초록 하늘
 못나고 뒤엇긴 보리밭 길 보았네
 보았네 보았네 멀치 덩장 산마이 그물 너머
 바람만 불어도 징징 울음 나고
 손가락만 스쳐도 울음이 배어 나올
 서러운 우리나라 앓은뱅이 섬들 보았네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웬 설움 이리 많은지
 아리랑 아리랑 나리꽃 꺾어 섬 그늘에 띄우면서
 - 곽재구, 「전장포 아리랑」 -

O / X 퀴즈

01. '눈물 방울'은 섬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시구이다. (O , X)
02. 구체적 지명을 사용하여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O , X)
03. 화자는 '못나고 뒤엇긴'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O , X)
04. '섬'을 '눈물 방울'과 '설움'으로 드러낸 것은 '우리나라의 사랑들'의 삶이 자그맣고 슬프기 때문일 것이다. (O , X)
05. 특정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O , X)
06. '아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 '한'의 정서를 환기하면서 시적 대상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O , X)
07. 나리꽃을 꺾는 것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인식이 내포되어 있는 행동이다. (O , X)
08. 앞뒤가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안정감을 주고 있다. (O , X)
09. 말하고자 하는 시적 대상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O , X)

1 표현상의 특징 정리하기

- ①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예 반짝이는 반짝이는, 보았네 / 보았네 보았네
- ② 음성 상징어를 통해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 징징
- ③ 색채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 초록 하늘
- ④ 수미상관을 통해 시적 안정감을 부여한다.
예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 웬 눈물방울 이리 많은지 / 각이도 송이도 지나 안마도 가면서 -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 웬 설음 이리 많은지 / 아리랑 아리랑 나리꽃 꺾어 섬 그늘에 띄우면서
- ⑤ 화자의 정서를 대상에 이입하여 나타내었다.
예 자그맣고 슬픈 우리나라 사랑들, 서러운 우리나라 앓은뱅이 섬들
- ⑥ 구체적인 공간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예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 / 웬 눈물방울 이리 많은지
- ⑦ 은유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예 우리나라 눈물, 우리나라 사랑 (섬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구절임)
- ⑧ 활유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예 꼬막 껍질 속 누운 초록 하늘
- ⑨ 불안정한 문장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예 아리랑 아리랑 나리꽃 꺾어 섬 그늘에 띄우면서

2 중요 내용 정리하기

- ① '각이도(전남 영광군), 송이도(전남 영광군), 안마도(전남 영광군), 재원도(전남 신안군), 부남도(전남 신안군), 낙월도(전남 영광군)'는 실제 섬의 이름으로 사실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 ② '눈물'과 '사랑'은 섬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자, 섬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시어이다.
- ③ '바람만 불어도'와 '손가락만 스쳐도'는 작은 시련이긴 하지만, '울음'이 나올 만큼 아프므로 작은 시련이래도 '섬들 (=우리 민족)'에게는 '시련'이라 이해해야 한다.
- ④ '앓은뱅이 섬'은 작고 연약한 우리 민족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시어이다.
- ⑤ '울음'은 우리 민족의 애환과 관련이 있다.
- ⑥ '아리랑 아리랑'은 민요의 후렴구로, 우리 민족의 애환을 환기시킨다.

내용 이해하기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구체적 지명이 나타남.

웬 눈물방울 이리 많은지

각이도 송이도 지나 안마도 가면서

구체적 지명이 나타남. 섬 이름임. (각이도, 송이도, 안마도)

반짝이는 반짝이는 우리나라 눈물 보았네

섬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

해석 화자는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눈물방울이 많다는 점을 떠올리고 있다. '눈물'은 보통 기쁨보다 '슬픔'과 관련 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유념하여 다음을 해석하자. '각이도, 송이도, 안마도'는 모두 섬 이름인데, 화자는 이곳을 거쳐 가면서 '우리나라의 눈물'을 보았다고 한다. 화자가 본 것은 곧 섬이기 때문에 눈물은 섬의 은유적 표현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제 몇 가지 시어를 가지고 종합하여 생각해 보자. '아리랑'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우리 민족의 애환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전장포 앞바다에 있는 섬들을 보며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런 시는 구체적인 장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당황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화자가 그곳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보았는지' 객관적인 정보를 캐치하는데 주목하였으면 한다.

보았네 보았네 우리나라 사랑 보았네

섬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

재원도 부남도 지나 낙월도 흐르면서

구체적 지명이 나타남. 섬 이름임. (재원도, 부남도, 낙월도)

한 오천 년 떠밀려 이 바다에 쫓기운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음.

자그맣고 슬픈 우리나라 사랑들 보았네

섬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

해석 화자는 이번에 '사랑'을 보았다고 말한다. 이 역시 '섬'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재원도, 부남도, 낙월도'를 흐르면서 떠밀려 온, 그리고 쫓기어 온 섬을 보았다고 말한다.

이 구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내용은 '쫓기운, 자그맣고, 슬픈'이란 세 단어이다. 이 사랑들은 누군가로부터 쫓기는 존재이자, 연약하며 또 슬픔을 지닌 채 살아온 것들이다. 이 부분을 아프고, 힘들고 안타까운 우리 민족의 현실로 이해해도 좋다. (이 시는 외재적 해석을 가지고 해석해도 괜찮다)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데에 있다. 우리들의 삶이 힘들지만, 사랑을 지닌 존재 이렇게 해석해도 좋다.

학생들도 이 부분은 좀더 '사랑'에 좀 더 주목하며 섬의 이미지를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

꼬막 껍질 속 누운 초록 하늘

못나고 뒤엉긴 보리밭 길 보았네

보았네 보았네 멀치 덩장 산마이 그물 너머

물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막대를 박아 그물을 올리려처럼
쳐 두고 물고기를 원통 안으로 몰아넣어 잡는 그물

바람만 불어도 징징 울음 나고

시련으로 인한 아픔을 보여주는 구절. ①

손가락만 스쳐도 울음이 배어 나올

시련으로 인한 아픔을 보여주는 구절. ②

서러운 우리나라 앓은뱅이 섬들 보았네

화자의 슬픈 감정이 이입된 구절.

해역 이 시는 이쯤에서 정리가 된다. 화자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섬’과 ‘우리 민족의 애환’에 있다. 따라서 나머지 시어들도 이에 맞추어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이다.

먼저, ‘꼬막 껍질 속에 누운 초록 하늘’, 그리고 ‘못나고 뒤엉긴 보리밭길’을 보았다고 한다. 이 시에서 ‘화자’가 보는 대상은 ‘섬’뿐이다. 따라서 ‘꼬막 껍질 속 누운 초록 하늘’이란 표현을 ‘섬’으로 해석해도 된다. (푸른 하늘을 ‘초록’이라 표현한 부분에서 섬의 이미지를 착안하였다고 본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못나고 뒤엉긴’에서 우리 민족의 안타까운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만 불어도 징징 울음나고’, ‘손가락만 스쳐도 울음이 배어 나올’이란 구절도 우리 민족의 아픔으로 해석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다만, ‘바람’과 ‘손가락’이 크나큰 시련이 아니지만 작은 시련에도 우리 민족은 힘겨워하며, 슬퍼한다는 것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화자는 ‘서러운’이란 감정을 다시 한 번 ‘섬’에 이입하며, 우리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섬’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정리하면 된다.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웬 설움 이리 많은지

섬 그늘에 띄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나타나 있음.

아리랑 아리랑 나리꽃 꺾어 섬 그늘에 띄우면서

해역 화자는 한 번 더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를 언급한다. 이때 ‘눈물 방울’에서 ‘설움’으로 바뀐 것과 ‘나리꽃을 꺾는’ 행동이 추가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나리꽃을 꺾는’ 주체는 누구일까? 아마 이들을 위로하고 싶은 화자로 이해하는 것이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종합하자면, 화자는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있는 ‘섬들(=우리 민족)’의 설움을 위로하고 싶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학생들도 해당 작품을 해석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어떤 정서를 지니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접근하여 내용을 파악하였으면 한다.

KEY WORDS

#우리민족 #애환 #섬들 #위로 #설움 #눈물 #사랑

- 곽재구, 「전장포 아리랑」 -

[작품 특징] 고향을 떠나 살아야 하는 삶과 비애에 대한 내용이 담긴 작품.

[중요도] 중상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
 내 살던 집 뒷마루에 앉으면
 벽에는 아직도 쥐오줌 얼룩져 있으리
 담 너머로 늙은 수유나뭇잎 날리거든
 두레박으로 우물물 한 모금 떠 마시고
 가위 소리 요란한 옛장수 되어
 고추잡자리 새빨간 노을길 서성이려네
 감석* 깔린 장길은 피하려네
 내 좋아하던 고무신 집 딸아이가
 수틀 끼고 앉았던 가갯방도 피하려네
 두엄 더미 수북한 쇠전 마당을
 금 줄기 찾는 허망한 금전꾼 되어
 초저녁 하얀 달 보며 거닐려네
 장국밥으로 깊은 허기 채우고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르려네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게만
 삶은 때로 애달기도 하리
 긴 능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보며
 길 잘못 든 나그네 되어 떠나려네

— 신경림, 「고향길」 —

* 감석 : 감돌. 유용한 광물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들어 있는 광석.

O / X 퀴즈

01. 특정한 종결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O , X)
02. 시적 화자는 자신이 살았던 고향집 모습을 추측하고 있다. (O , X)
03. 화자는 옛장수를 요란하다고 생각하여 이들에게 부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O , X)
04. 추억을 훼손하고 싶지 않아 하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O , X)
05.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탈바꿈한 고향을 찾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O , X)
06. 고무신 집 딸아이에게 당한 배신감이 '허망함'으로 표현되고 있다. (O , X)
07. 토속적 시어를 사용하여 향토적인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O , X)
08.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향에 정착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O , X)

1 표현상의 특징 정리하기

- ①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예 쥐오줌 얼룩져 있으니, 수유나뭇잎 날리거든
- ② 색채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예 고추잠자리 새빨간 노을길, 하얀 달, 검은 하늘
- ③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예 가위 소리 요란한
- ④ 향토적 정감이 드러난 시어가 나타난다.
예 툇마루, 두레박, 우물물 등
- ⑤ 특정 어미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예 앉으려네, 서성이려네, 피하려네, 거닐려네, 오르려네, 떠나려네
- ⑥ 시간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예 새빨간 노을길, 초저녁 하얀 달, 검은 하늘에 박힌 별

2 중요 내용 정리하기

- ① '벽에는 아직도 쥐오줌 얼룩져 있으니'는 현재의 화자가 추측하는 바이지만, 여전히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드러내는 구절이기도 하다.
- ② '옛장수', '금전꾼', '나그네' 모두 고향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며 사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다.
- ③ 화자가 피하는 공간은 총 두 군데이다.
 - 1) '장길'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길이란 의미이다. 이곳을 피하려는 구체적인 이유는 추론할 수는 있으나, 사건이 많이 드러나므로 출제자 의도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좋다.
 - 2) '가갯방'은 화자가 좋아하던 집 딸아이가 살았던 곳이다. 보통은 찾아가려는 심리가 먼저인데 화자는 이를 피하려는 것을 보아, '화자의 옛 기억'을 간직하고 싶은 것으로 이해된다.
- ④ '허망한 금전꾼'에서 물질적 욕구로 사는 삶에 대한 허무함을 느낄 수 있다.
- ⑤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란 주체적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외부의 상황에 의해 살아왔다는 의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이 애달프다는 점'이다.

내용 이해하기

아무도 찾지 않으려네

고향을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의미임.

내 살던 집 툇마루에 앉으면

과거를 회상하고 있음.

벽에는 아직도 쥐오줌 얼룩져 있으니

화자가 살았던 고향집 모습을 추측하고 있음.

담 너머로 늙은 수유나뭇잎 날리거든

두레박으로 우물물 한 모금 떠 마시고

가위 소리 요란한 옛장수 되어

화자가 되려는 대상 ①

고추잠자리 새빨간 노을길 서성이려네

화자가 돌아다니고 싶은 공간 (시간적 배경 : 오후에서 저녁으로 바뀌는 때)

해역 화자는 고향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그곳은 쥐오줌이 얼룩져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이미지에서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이미지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화자는 담 너머로 늙은 수유 나뭇잎이 날리는 시기에, '두레박'으로 '우물물'을 한 모금 떠 마시고, '옛장수'가 되어 노을길을 서성이고 싶다고 한다.

보통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상실감 등과 같이 화자의 정서가 주요 화제이지만, 이 시는 '행동'이 두드러진 시이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옛장수'가 되어 서성인다는 행동이 이 구절에서 중요한데, '고향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야 하는 화자의 삶'으로 해석해야 한다.

학생들은 해당 부분을 해석할 때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로 구분하지 말고, '화자는 고향을 생각하고 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옛장수가 되어 서성이고 싶어 한다' 정도로만 이해해 두는 것이 좋다.

화자가 피하고 싶은 공간 ①

간석* 깔린 장길은 피하려네

감돌, 유용한 광물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들어 있는 광석.

내 좋아하던 고무신 집 딸아이가

화자가 좋아하는지, 화자를 좋아하는지 중의적 표현이지만, 상황상 전자로 읽는 것이 개연성이 높음.

수를 끼고 앉았던 가갯방도 피하려네

화자가 피하고 싶은 공간 ②

해역 이번엔 화자는 '피하고 싶은' 대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좋아하던 고무신 집 딸아이가'라는 문맥을 고려해 보면 이 둘은 '싫어서'란 이유로 피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장길'과 '가갯방' 모두 화자가 간직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그곳을 다시 찾아가지 않으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추억을 훼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 볼 수 있겠다.

학생들은 단순 구조로 되어 있는 문장을 어려워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보통은 좋아했던 친구라면 당연히 만나고 싶어 하겠지만 화자는 그곳을 피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해석해 두면 된다.

두엄 더미 수북한 쇠전 마당을

금 줄기 찾는 허망한 금전꾼 되어

화자가 되려는 대상 ②

초저녁 하얀 달 보며 거닐려네

시간적 배경이 나타남.

장국밥으로 깊은 허기 채우고

배가 고플 화자의 모습이 나타남.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르려네

이 말은 화자가 현재 있는 공간은 변화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함.

해석 이번에 화자가 되고 싶은 대상은 '금전꾼'이다. 금전꾼이란 금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물질적인 사람이 되자는 의미인데, '허망한'이란 수식으로 보아 화자는 이를 바람직한 가치라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화자는 고향길을 걸으며 다양한 생각을 한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화자의 마음을 채우지는 못하고 '읍내로 가는 버스'에 오려고 한다.

학생들도 이 부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되, '허망한'이란 심정을 꼭 해석했으면 한다. 화자는 고향을 찾아 왔음에 불구하고 행복함을 맛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겐만

주체적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왔다는 의미임.

살은 때로 애달기도 하리

긴 능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보며

시간적 배경이 나타남.

길 잘못 든 나그네 되어 떠나려네

화자가 되려는 대상 ③

해석 화자는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의 삶은 때로 애달프다고 말한다. 타인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자의 삶도 유사해 보인다. '연장수, 금전꾼' 그리고 '나그네'가 되어 떠난다는 화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고향에 정착하지 못하고 고향을 등지고 떠나고 있다.

여기서 좀더 생각을 해 보자면, '길을 제대로 든'으로 바뀌려면 화자가 그리워한 고향의 모습이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닐까 싶다.

학생들은 이 부분을 좀더 주목해서 해석해야 한다. 특히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면 한다.

- 신경림, 「고향길」 -

KEY WORDS

#고향 #아름다운 추억 #떠돌이 #애달픔

[작품 특징]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긍정적인 방향을 고찰하고 희망을 놓지 않는 내용이 담긴 작품. (작가가 윤동주이므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작품임.)

[중요도] 상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 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 -

O / X 퀴즈

01.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가 제시되고 있다. (O , X)
02. '백골'은 '아름다운 혼'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아가 형상화된 대상이다. (O , X)
03. 화자는 '백골'과 '아름다운 혼'의 화해를 통해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O , X)
04. '개'는 '나'를 쫓는다는 점에서 부정적 의미를 지닌 대상이다. (O , X)
05. 청유형 어조를 사용하여 부정적 자아와의 단절을 소망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O , X)

1 표현상의 특징 정리하기

- ① 직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예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 ②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예 내가 우는 것이냐 / 백골이 우는 것이냐 /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 ③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예 내가 우는 것이냐, 짚는다.
- ④ 공간이 대비되어 나타난다.
예 고향 (벗어나고 싶은 곳) - 또 다른 고향 (가고 싶은 곳)
- ⑤ 전반적으로 독백적 어조가 강하게 나타난다.

2 중요 내용 정리하기

- ① '지조 높은 개'는 화자의 각성을 촉구하는 대상으로 그려져 있다.
- ② '고향에 돌아온 날 밤'의 '밤'과 '어둠을 짓는 개'의 '어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현실과 연결 지어 해석할 수 있다. (반영론적 시각에서 해석하면, 일제강점기로 읽을 수 있다.)
- ③ 해당 시에는 자신을 3가지로 분리하여 읽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분리하여 깊이 생각하는 태도를 '성찰적 태도'라고 한다.
 - ㉠ 화자: 자기 자신, 현실적인 자아
 - ㉡ 백골: 부정적인 자아, 현실 도피적인 자아, 소극적 자아
 - ㉢ 아름다운 혼: 이상적인 자아
- ④ '백골 몰래'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부정적인 자아와 단절하고 싶다.
- ⑤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은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바람직한 세계, 지향점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용 이해하기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시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음.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부정적인 자아. (소극적이며 현실 도피적인 자아로도 읽음.)

해역 화자는 '고향'에서 돌아왔다. 시간은 '밤'. 그런데 혼자 돌아오지 않았다. '내 백골'이 같이 따라왔다.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의 백골'이 따라왔다는 점에서 '나'와 '백골'이 서로 분리되어 있음을 착안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분리'된 채 '한방'에 누워있었다는 것도 확인해 두어야 한다. 학생들도 이 부분을 읽을 때, '화자'와 '내 백골'이 분리된 점을 고려하면서 다음을 읽도록 하자.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화자가 있는 공간임. 운동주의 시에서 '우주, 하늘, 바람'이란 소재가 종종 등장함. 긍정적인 세계 정도로 해석하면 됨.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해역 '운동주' 시인이 좋아하는 시어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만 생각하고 다른 작품과의 연계성은 생각하지 말자. 일단, 화자가 있는 방은 ① 우주로 통한다, ② 그리고 하늘이 있다, ③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도 괜찮다. '어두운 방'과 다른 열린 세상 정도로만 해석하면 된다. 앞으로 화자가 '어두운 공간'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갈 것인지 여기에 주목하며 계속 읽을 것!

어둠 속에 곱게 풍화 작용하는
'어둠'은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함. 그곳에서 '풍화 작용'을 한다는 의미는 자아가 소멸되고 있다는 의미임.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현실적 자아를 의미함. (백골처럼 살 것인지, 새로운 세상을 위해 살 것인지 갈등하는 존재임.)

백골이 우는 것이냐
부정적 자아를 의미함.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이상적 자아를 의미함.

해역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깊이 있게 확인해 보자.
① 화자가 있는 장소는 '어두운 방'이다.
② 화자는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 작용을 하는 백골을 들여다보고 있다.
③ 화자는 백골을 보며 눈물을 짓는 것이 누구인지 궁금하고 있다.
④ 즉, 내가 우는 것인지, 백골이 우는 것인지,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인지 말이다. '눈물을 짓는다'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절대 '행복한 상황' 또는 '기쁜 상황'에서 하는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화자의 상황은 '부정적인 쪽'에 가까우며, 화자의 감정은 '슬픔'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하나 더, '아름다운 혼'의 존재를 인지해야 한다. 1연에서는 '나'와 '백골'뿐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아름다운 혼'이란 긍정적인 존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름답다'는 말에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 정도로만 해석해도 좋다.

그렇다면, 왜 슬퍼하는가? 부정적 존재로 남는 것도 화자 입장에서 슬픈 일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마냥 갈등만 하면서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슬픈 일이다.

화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하여 다음을 읽어 보자.

지조 높은 개는

현실적 자아를 꾸짖는 존재를 의미함.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현실적 자아를 일깨우는 태도가 나타남.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어두운 방에서 쫓아내고 있음.

해석 새로운 대상인 '지조 높은 개'가 등장한다. 그냥 개도 아니다. '지조'란 '원칙과 신념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 나가는 깨끗한 의지'를 의미한다. 그런 존재가 밤을 새워 어둠을 짓고 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화자'를 쫓아내고 있다. 지조가 높은 개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쫓아내는 상황' 역시 긍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보통 쫓겨나면 기분 나쁘기 마련이겠지만, 지조 높은 개가 하는 행동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가자 가자

쫓기는 상황이지만, 반복을 통해 자신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음.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부정적 자아에서 벗어나려는 의미임.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이상적 공간을 의미함.

해석 화자는 이 상황 속에서 '가자'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즉 쫓겨나는 상황이지만 기분 나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쫓기우다'는 말에서 자기 스스로가 아닌 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을 드러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쫓겨난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백골 몰래'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화자 입장에서 '백골'은 두고 오고 싶은 존재이며, 부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다. 이 상황 속에서 이해해 볼 때, 1연의 '백골'이 따라 와 누운 행동이나, '곰게 풍화 작용하는 상황' 모두 화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화자는 자신이 가고 싶은 공간은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임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이상적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주목하자.

이 시는 자신을 세 개의 자아로 설정하며 '부정적 자아'가 아닌 '이상적 자아'를 선택하여 이상적 세계를 추구하는 쪽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화자의 고뇌가 두드러진 작품이니 학생들도 그의 고민을 고려하며 전체적으로 다시 읽어보기를 당부한다.

- 윤동주, 「또 다른 고향」 -

KEY WORDS

#화자 #백골 #아름다운_혼 #부정적인_현실 #지조_높은_개

[작품 특징]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작품. (다양한 대상을 이용하여 보여주고 있으므로 여기에 주목할 것!)

[중요도] 상 **NEW**

산에나 올라서서
바다를 보라
사면(四面)에 백열 리*, 창파(滄波) 중에
객선(客船)만 뚱뚱…… 떠나간다

명산대찰(名山大刹)이 그 어디메냐
향안, 향탑*, 대그릇에
석양이 산머리 넘어가고
사면에 백열 리, 물소리라

“젊어서 꽃 같은 오늘날로
금의(錦衣)로 환고향(還故鄉) 하옵소서.”
객선만 뚱뚱…… 떠나간다
사면에 백열 리, 나 어찌 갈까

까투리도 산속에 새끼 치고
타관만리(他官萬里)에 와 있노라고
산중(山中)만 바라보며 목메인다
눈물이 앞을 가리운다고

들에나 내려오면
치어다보라
해님과 달님이 넘나든 고개
구름만 첩첩…… 떠돌아 간다

— 김소월, 「집 생각」 —

* 백열 리: 백십 리.

* 향안(香案), 향탑(香榻): 제사 때에 향로나 그릇을 올려놓는 상.

O / X 퀴즈

01. 제목을 고려할 때, '객선'은 화자의 지향적 공간을 방해하는 사물이다. (O , X)
02. 작품 내에 시간의 변화가 드러나 있다. (O , X)
03. '뚱뚱' 떠가는 것은 곧 돌아갈 고향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과 관련이 있다. (O , X)
04. 화자와 까투리와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쓸쓸한 감정을 부각하고 있다. (O , X)
05. 화자는 해와 달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탈속적인 삶을 표현하고 있다. (O , X)

1 표현상의 특징 정리하기

- ① 명령형 어미를 통해 대상에 주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 바다를 보라, 치어다보라
- ② 동일한 시행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예 객선(客船)만 등등…… 떠나간다
- ③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예 객선만 등등…… 떠나간다, 구름만 첩첩…… 떠돌아 간다
- ④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예 까투리도 산속에 새끼 치고 ~ 눈물이 앞을 가리운다고
- 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였다.
예 “젊어서 꽃 같은 오늘날로 / 금의(錦衣)로 환고향(還故鄉) 하 읍소사.”
- ⑥ 자연물이 마치 사람처럼 말을 하듯이 표현하였다. (의인화)
예 타관만리(他官萬里)에 와 있노라고 / 산중(山中)만 바라보며 목메인다 / 눈물이 앞을 가리운다고
- ⑦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예 나 어찌 갈까
- ⑧ 수 표현을 통한 고향과의 거리감이 나타나 있다.
예 사면(四面)에 백열 리

2 중요 내용 정리하기

- ① ‘구름’은 ‘첩첩’과 어우러져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그려내고 있다.
- ② ‘객선’은 고향에 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과 연결하여 볼 수 있다.
- ③ ‘사면에 백열 리’라는 구절에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화자의 상황을 읽어낼 수 있다.
- ④ ‘해님’과 ‘달님’은 화자와 달리 고개를 넘을 수 있는 대상이다.
- ⑤ ‘까투리’는 화자의 슬픈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 ⑥ ‘사면에 백열 리’와 ‘물소리’를 통해 고향에 가기 어려운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다.
- ⑦ ‘타관만리’에서 ‘까투리’ 역시 화자와 마찬가지로 고향을 떠난 것을 알 수 있다.

내용 이해하기

산에나 올라서서

집에 갈 수 없는 화자의 상황이 나타나 있음.

바다를 보라

사면(四面)에 백열 리, 창파(滄波) 중에

백십 리. 넓고 큰 바다의 맑고 푸른 물결.

객선(客船)만 등등…… 떠나간다

‘객선’은 손님들이 타는 배로, 화자 역시 가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음.

해역 화자는 ‘산’에 올라서서 ‘바다’를 본다. 산에 올라가서 포착한 장면은 넓고 큰 바다의 맑고 푸른 물결, 그리고 그 위에 여객선이 있다. 제목이 〈집 생각〉이란 점에서 집에 가지 못하는 화자의 상황을 읽을 수 있다. ‘객선만 등등’이라는 말에서 화자의 슬픔을 읽을 수 있으니, 집에 가지 못하는 화자의 상황을 인지할 것!

명산대찰(名山大刹)이 그 어디메나

이름난 산과 큰 절.

향안, 향탑, 대그릇에

제사 때에 향로나 그릇을 올려놓는 상.

석양이 산머리 넘어가고

사면에 백열 리, 물소리라

고향에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처지를 확인할 수 있음.

해역 해당 구절도 역시 고향에 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화자의 상황이 적혀 있다. ‘명산대찰, 향안, 향탑’은 이름난 산과 큰 절, 그리고 제사 때 쓰는 도구와 관련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언급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대그릇에 석양이 산머리 넘어간다는 점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심화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해당 시를 이해할 때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계속 해서 인지하며 다음을 읽길 바란다.

“젊어서 꽃 같은 오늘날로

누군가의 말이 삽입되어 있음.
고향으로 올 때 금의환향하라고 좋은 말을 해 줌.

금의(錦衣)로 환고향(還故鄉) 하옵소사.”

객선만 등등…… 떠나간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정이 더 심화되어 감.

사면에 백열 리, 나 어찌 갈까

해역 대화가 삽입되어 있다.
“젊어서 꽃 같은 오늘날로 금의환향하길 바란다.”고 말이다.
화자가 무엇을 위해 고향에서 떠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말을 생각하면서, 객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거리를 느끼면서 고향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고향에 갈 수 없는 처지에 대한 슬픔도 느낄 수 있으니 이 점도 확인하길 바란다.

까투리도 산속에 새끼 치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음.

타관만리(他官萬里)에 와 있노라고

고향을 떠나 먼 곳에 와 있음. (화자의 처지와 유사함.)

산중(山中)만 바라보며 목메인다

고향을 떠나와 슬픔. (화자의 정서와 유사함.)

눈물이 앞을 가리운다고

해석 이번에는 '까투리'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제시하고 있다.
① 산속에서 새끼를 쳤다.
② 고향이 아닌 곳에 와 있다.
③ 목도 메이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화자의 슬픔이 까투리에 이입되어 다시 한 번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상기하고 있다.

들애나 내려오면

치어다보라

해님과 달님이 넘나든 고개

해님과 달님은 갈 수 있으나 자신은 갈 수 없음.

구름만 첩첩…… 떠돌아 간다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구름을 통해 보여주고 있음.

해석 여전히 화자는 고향이 그리운다. 이번에는 '해님과 달님'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들은 쉽게 넘는 곳인데 화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구름'을 통해 '첩첩' 쌓이는 답답한 심정을 보여주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는 고향이 그리우며', 그곳에 갈 수 없는 자신의 슬픔을 다양한 대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도 화자의 처지를 생각하며 다른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인지할 것!

- 김소월, 「집 생각」 -

KEY WORDS

#고향 #방랑 #그리움 #쓸쓸함 #부정적인_현실

07. 정답 X

‘꿇은 밤이슬’은 만술 아버지의 정성에 대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응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술 아버지’의 감정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술 아버지’가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이므로, 당신의 감정이 투영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투영’은 어떤 것을 다른 대상에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08. 정답 O

‘축문’이란 제사 지낼 때 읽는 추모의 글입니다. 글을 모르는 만술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과 정성어린 내용으로 볼 때 만술아버지의 축문은 글 자체가 아닌,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 자체라고 파악할 수 있지요.

05 | 한용운, 「알 수 없어요」
수특 문학 95P

01. O	02. X	03. X	04. X	05. X
06. O	07. X	08. O	09. X	10. X

01. 정답 O

‘통사구조’란 문장구조로 조사와 어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 -까’ 방식의 통사구조가 반복되어 통일감을 주므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02. 정답 X

‘지향’이란 화자의 마음이나 몸이 어떤 대상을 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연에서 ‘나의 가슴’은 ‘누구’를 위해 그칠 줄 모르고 타므로, 화자는 ‘누구’를 지향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03. 정답 X

이 시에서 ‘누구’의 모습은 자연의 흐름과 변화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발꿈치로 바다를 밟고 손으로 하늘을 만지는 것을 절대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대자에 대한 회의적 태도보다는 그를 추구하고 따르려는 구도적 태도가 오히려 드러나 있습니다. 참고로 회의는 품을(회) + 의심할(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로서 특정 대상에 의심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04. 정답 X

‘-까’로 종결되는 어미의 반복은 화자가 지향하는 ‘누구’에 대한 언급과 그에 대한 지향적 자세를 드러낼 뿐, 비애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며 화자는 현재 비애감을 느끼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05. 정답 X

이 작품은 자연 친화적 태도가 아니라 입에 대한 지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06. 정답 O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라는 표현은 태울 수 없는 대상이 다시 탈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모순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이 그칠 줄 모름을 강조하고자 한 표현이므로 역설적 표현이 맞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절대자를 지향하여 삶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기에 구도자적 태도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07. 정답 X

‘음성상징어’란 음성을 통해 대상의 소리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언뜻언뜻’이나 ‘구비구비’등 구어적 소리를 통해 대상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자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08. 정답 O

특정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상징’ 혹은 ‘관념화’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등불’이라는 대상에 ‘누구’를 향해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모습과 ‘악한’이라는 표현을 통해 겸손한 자아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09. 정답 X

이 시는 ‘누구’를 향해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쓰여 있으므로 대화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한 것은 아닙니다.

10. 정답 X

‘푸른 하늘’은 지리한 장마의 검은 구름 틈에서 발견되는 존재입니다. 검은 구름과 대비되어 긍정적 속성이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부정적 이미지인 번뇌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20

서정주, 「견우의 노래」

수특 문학 116P

01. X	02. X	03. O	04. O	05. X
06. O	07. O	08. X	09. O	10. O

01. 정답 X
사랑을 위해서는 오히려 그 사랑과 반대되는 '이별'이 있어야 한다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별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02. 정답 X
반어적 표현이 존재하지 않으며, 청자인 '직녀'에 대한 원망도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반어란,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화자의 의도와, 반대되는 표현을 말합니다.
03. 정답 O
물살과 바람은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 필요한 이별을 환기합니다. 물살, 바람이 있는 은하물로 인해 화자와 청자는 만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04. 정답 O
이 작품은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인 작품입니다. 견우와 직녀 사이에는 은하수가 흘러 서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푸른 은하물'은 화자의 청자를 단절시키는 소재이면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재이기도 하므로 적절합니다.
05. 정답 X
영탄법인 3연의 '오!'를 통해 영탄적어조를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의 이별을 합리화하는 과정이므로, 대상을 만났을 때의 기쁨을 추측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06. 정답 O
'불타는 흙뿤'은 이별로 인한 격렬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화자의 외로움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시구이므로 적절합니다.
07. 정답 O
화자는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기까지 각자의 해야 할 일에 충실하자고 제한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08. 정답 X
이별을 야기한 존재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이별에 대해 원망이 아닌 수용의 자세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09. 정답 O

1연의 경우, 4/3/5/ 3/3/5의 방식으로 7·5조와 유사한 음절수가 두드러집니다. 이는 음절수의 조절을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적절합니다.

10. 정답 O

'돌아서는 갈 수 없는'이라는 표현은 이별은 피할 수 없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이별의 상황에서 맡게 될 일 또한 피할 수 없음을 나타내므로, '고난의 불가피성'이라는 시구는 적절합니다.

21

박재삼, 「흥부 부부상」

수특 문학 116P

01. X	02. X	03. X	04. O	05. X
06. O	07. O	08. O	09. O	

01. 정답 X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시에 두고 박을 가르기 전에 웃음살을 주목하라고 1연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뒤 이어 '금, 황금 벼이삭'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표현은 '금, 황금 벼이삭'이 내포하고 있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웃음의 물살이 ~문제다'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는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부부애)인 가치가 더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박 덩이'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어도 웃을 수 있는 흥부 부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기에 위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02. 정답 X
'황금 벼이삭이 문제리'라는 표현은 '황금 벼이삭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로 생각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황금 벼이삭을 거부한 것도 아니고, 남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회를 풍자하여 헤아려 보라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03. 정답 X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는 흥부 부부가 서로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부 부부의 문제점을 나열한 부분도 연민의 모순성을 드러낸 부분도 없습니다.
04. 정답 O
'손발 닳은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 면(面)들아'에서 '손발 닳은 처지'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흥부 부부의 모습으로 서로 비슷한 처지인 그들의 모습이 서로의 얼굴에 나타나 있음을 '거울 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뒤이어 나오는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서로에 대해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정답 X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에서 '구슬'은 흥부 부부가 흘리는 눈물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흥부 부부가 서로의 처지의 위로하는 부분으로 시적 화자에게 보내는 위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06. 정답 O

'구슬'은 눈물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은유법은 비유에 속하는 표현입니다. '구슬'이라는 표현을 통해 흥부 부부가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며 위로하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시상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7. 정답 O

'금이 문제리, 황금 비이삭이 문제리'라는 표현은 물질적 가치로 나타나는 '금, 황금 비이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웃음의 물살이~그것이 확실히 문제다'라는 것은 '웃음이 문제다'라는 것으로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신적 가치는 '같이 웃어 비추던 겨울,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08. 정답 O

'없는 떡방아 소리'는 떡방아 소리가 없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삶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09. 정답 O

'본(本)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라는 것은 웃음 물살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서로 위로하며 웃음 지을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22

김용택, 「섬진강 15 - 겨울, 사랑의 편지」

수특 문학 119P

01. X 02. X 03. O 04. X 05. O

06. X 07. X

01. 정답 X

'겨울 달빛 속의 물풀'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는 민중을 의미합니다. '서리낀 풀잎'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는 민중을 화자는 사랑한다고 위로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겨울 달빛'이 화자에게 시련을 준다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02. 정답 X

'맑은 피'는 사람들이 지닌 순수한 생명력을 의미하며 '따뜻한 피' 역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순수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화

자는 자연물들을 통해 사람들(민중)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피'가 화자가 겪은 시련의 결과물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화자는 민중들에 대해 위로를 보내고 있지 화자의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03. 정답 O

이 작품에 시적 대상은 민중입니다. 이 민중은 '당신'으로 나타내며 '산, 들, 강, 풀'등 자연과 더불어 가난하게 살아가고, 따뜻한 가슴을 지니고 있으며 시련(얼고, 시리고, 서리낀)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화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이런 민중들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시적 대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선지는 적절합니다.

04. 정답 X

'가난했던 자신의 삶'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논과 밭과 함께 가난하게 삽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 민중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자뿐 아니라 이런 민중들도 가난에 대해 불만스럽게 느끼는 부분은 찾을 수 없습니다.

05. 정답 O

'시린 보릿잎, 따뜻한 피'에 촉각적 심상, '잔물결 그대로 반짝이며'에 시각적 심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련을 견디는 민중과 그들의 순수한 생명력 등 민중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정답 X

'-버니다'의 경어를 사용하며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지는 않기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07. 정답 X

'땅을 향한 겨울 풀들의 몸 다 누인 이 그리움'에서 '풀'을 의인화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통을 인내하는 풀(민중)을 표현하는 것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07. 정답 O

화자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꿈꾸며 밤새도록 창문을 열지만 결국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창문만 있고 방 한 칸 없는 사람들'이란 결국 타인과 소통할 수 없고 단절된 상태로 놓여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 한 칸'이 없고 '창문만' 있는 현실은 소통의 단절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0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수특 문학 311P

01. O	02. O	03. O	04. O	05. X
06. X	07. O	08. X	09. O	10. O

01. 정답 O

화자는 '습내 나는 좁고, 누긋한 방'에 홀로 외로이 누워서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에 대해 천천히 곱씹어본다는 의미로서, 이 반추 행위로 인해 작품 전체에 화자의 성찰적인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02. 정답 O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제가 검토할 때 표시해두었던 부분입니다만, 일단 해설은 마련해두었습니다.) ‘딱 메어올 적이며’—‘핑 괴일 적이며’—‘부끄러울 적이며’,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시는 특정한 어미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시행들은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생각을 전환하고 의지적으로 극복해나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제를 강조해주기도 합니다.

03. 정답 O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쓸쓸한 거리 끝에 헤메이’다가, ‘어느 목수네 집 헛 샷을 깬, /한 방에 들’었다는 언급에서 공간의 이동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본다는 언급에서 시선의 이동을 볼 수 있습니다.

04. 정답 O

‘것이였다, 붙이였다.’에서 종결어미 ‘-다’가 반복되며,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05. 정답 X

처음에 화자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부끄러워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만,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차츰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마음의 정리는 ‘굳고 정한 갈

매나무’와 같이 자신도 굳고 정하게 앞날을 살아갈 것이라는 다짐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차츰 양금이 되어 가라앉’는 것을 상황의 악화를 암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06. 정답 X

화자가 무릎을 꿇는 것은,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저녁에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다잡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곧 자신 또한 갈매나무처럼 시련을 묵묵히 견뎌나가겠다는 의미이므로, 상황에 대한 화자의 굴종의 태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없습니다.

07. 정답 O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에 대해 천천히 곱씹어본다는 의미입니다. 화자는 지나온 시간에 대해 부끄러움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성찰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08. 정답 X

화자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 가는 것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09. 정답 O

‘갈매나무’는 외로이 눈을 맞아야 하는 시련과 고통 속에 있지만 의연하게 그것을 극복해나가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화자는 힘이 들 때마다 이 갈매나무를 상기하면서 자신도 그러한 굳고 정한 태도를 견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갈매나무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투영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 정답 O

이 시는 문장의 중간 중간 심표를 넣음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화자의 생각을 천천히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느 먼 산 뒷면에 바위 숲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와 같은 시의 마지막 부분은 독자에게 갈매나무의 초연한 모습을 상상하게 해주는 동시에 화자의 바뀐 태도에 주목하게끔 합니다.

07

박재삼, 「매미 울음 끝에」

수완 문학 203P

01. O 02. X 03. O 04. O 05. X

01. 정답 O

‘사랑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인가’를 통해 매미 울음 이전 이후와 사랑의 뜨거움과 그 이후를 유추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02. 정답 X

‘매미가 우는’ 상황과 유사한 것은, ‘소나기처럼 숨이 차게 정수리부터 목물로 들이붓는’ 상황과 유사하다.

03. 정답 O

‘매미가 우는 것’을 통해 사랑이라는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04. 정답 O

‘매미가 우는 것’을 통해 사랑이라는 관념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05. 정답 X

절정과 고요가 순환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08

이용악, 「다리 위에서」

수완 문학 227P

01. O 02. O 03. X 04. X 05. X

01. 정답 O

하루만 빠고 전부 다 일을 하였으므로 과거의 고됨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는 1연에 몇 번이나 등을 다시 켜야 하는 상황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02. 정답 O

다리 위에서, 이전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03. 정답 X

곡을 했을 때의 시점은 유년기이므로 그때에 이미 시간이 흘렀다고 볼 수 없다.

04. 정답 X

풀벌레 우는 가을 철을 통해 계절감은 조성할 수 있으나, 화자의 흥취와 관련이 없고 흥취를 드러내지도 않았다.

05. 정답 X

누나에게 입은 상처가 기술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9

문태준, 「가재미」

수완 문학 227P

01. O 02. O 03. X 04. X 05. X
06. O 07. X

01. 정답 O

그녀의 상황을 가재미가 누워있는 것을 표현하였으므로 타당하다.

02. 정답 O

‘-나다’의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

03. 정답 X

‘파랑’은 그녀의 과거를 상징하는 시어일 뿐이다.

04. 정답 X

풍족했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했던 삶이라고 보아야 한다.

05. 정답 X

현재의 모습을 나무로 표현했을 뿐이다.

06. 정답 O

나란히 눕는 행동이 그녀의 처지와 감정에 공감하려는 것이며, 그녀는 그러한 나를 위로하고 있다.

07. 정답 X

빠꾸기 소리는 과거의 삶과 관련이 있는 시어일 뿐이며, 그녀는 죽음 바깥의 세상을 희망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정끝별, 「속 좋은 떡갈나무」

수완 문학 247P

01. O 02. O 03. X 04. O 05. X

01. 정답 O

비어있는 속에 여러 존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 공생을 짐작할 수 있다.

31

고재중, 「세한도」

수특 문학 312P

01. O 02. X 03. X 04. O 05. O
 06. O 07. X 08. X

01. 정답 O

‘청솔’ 한 그루는 ‘꽃꽂이’라는 구절을 고려해 볼 때 부정적인 현실이 닥쳐도 고통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문맥과 ‘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다 청솔을 바라보는 태도’를 고려해 보면,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 내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지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02. 정답 X

‘엠프 방송으로 인해’ 농촌이 망가졌다는 해석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엠프 방송 하나로 / 집집의 생쥐까지 깨우던 회관 옆’이란 생쥐를 깨울 정도로 농촌이 활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농촌이 망가졌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등치의 터지고 갈라진 아픔’은 현재 농촌의 쇠락된 모습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구절은 ‘망가진 농촌’과 관련을 지을 수 있습니다.

03. 정답 X

‘뗏바람’은 ‘회관 들창을 거덜 내는’ 대상입니다. 문맥을 고려해 볼 때 농촌의 부정적인 현실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보고 ‘화자의 흥취를 부여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흥취’는 즐거움과 관련이 있는데, 이 구절을 포함한 해당 3연은 쇠락한 농촌에 대한 울분과 힘겨움을 위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상황 맥락상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04. 정답 O

‘견지한다.’는 말은 ‘어떤 견해나 입장 따위를 굳게 지니거나 지키다.’란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긍정적 태도를 고수한다. 긍정적 입장을 취한다.’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까막까치가 얼어 죽는 아침’에도 희망을 놓치지 않겠다는 화자의 생각을 고려해 볼 때, 화자는 고통과 시련의 시기가 올 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해당 선지는 타당합니다.

05. 정답 O

‘생산도 새마을도 다 끊긴 궁벽’은 농촌의 부정적인 현실로 이해됩니다. 이와 달리 ‘빗질’은 부정적인 대상인 ‘삭바람’이나 ‘서러움’을 잘 걸러내는 행동과 관련이 되므로 부정적인 현실에 놓일 때 이겨내고자 하는 화자의 생각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타당합니다.

06. 정답 O

‘그러나’를 중심으로 화자는 이전과 달리 ‘긍정적인 태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 부분에는 농촌의 부정적인 현실을 위주로 묘사를 하였다면, ‘그러나’ 이후에는 마을 사람들 ‘난장 난 비닐하우스’를 일으키며 청솔을 바라보며 의지를 다지고 있지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상의 전환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07. 정답 X

‘희망의 노예는 아니다.’란 화자는 막연하게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희망의 노예’가 ‘되고 싶다’는 설명은 문맥에서 찾을 수 없는 말이지요. ‘화자의 바람’이 청솔을 통해 보여주고 있지만, ‘희망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08. 정답 X

‘난장 난 비닐 하우스’는 ‘생산이 끊긴 농촌의 상황’과 서로 연결되지만, 화자가 이 상황을 보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화자의 회의적 태도와 연결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3

정진규, 「감자 먹는 사람들 - 삽질 소리」

수특 문학 119P

01. O 02. X 03. O 04. O 05. X

06. O 07. X 08. X

01. 정답 O

‘우리들’이라고 하면서 화자가 자신을 작품 표면에 드러내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02. 정답 X

‘삐걱거리는 저녁식탁’은 ‘불빛 흐린’과 함께 화자가 가난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제 간의 갈등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03. 정답 O

‘마디 굵은 식구들의 손’은 고된 노동에 시달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손 마디가 굵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시어들인 ‘흙을 파는 삽질 소리’와 연결시키면 노동으로 인해 굵어진 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된 노동은 삶의 고단함으로 연결할 수 있기에 적절한 선지입니다.

04. 정답 O

‘빗줄기’는 바깥에서 노동을 하는 식구들이 노동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으로 잠시나마 화자와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은 하루쯤 쉬어도 되리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정답 X

‘우리들은 타고난 사람들이었다’는 삽질을 하는 고된 노동을 숙명으로 받아드리는 태도가 나타난 부분입니다. ‘누구나 삽질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와 연결하여 화자와 가족들이 삽질을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노동으로(삽질 소리를 꿈에서도 들을 만큼) 삽질을 잘 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는 체념적 태도로 화자의 자족감과는 거리가 멀기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06. 정답 O

화자가 상황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부분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담담한 어조라는 것은 시상을 전개 할 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표현하는 것으로 이 작품에서 화자는 담담한 어조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7. 정답 X

식구들이 노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08. 정답 X

이 작품에서 화자가 자신과 식구들의 모습을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24

이용악, 「그리움」

수특 문학 255P

01. O 02. O 03. X 04. O 05. O

06. X 07. X

01. 정답 O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등 의문형 어미를 통해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 하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운문 문학에서 의문형 어미의 사용은 질문의 의미보다는 화자의 생각이나 정서를 강조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정답 O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서 ‘밤’이라는 어둠운 이미지와 ‘잉크병이 얼 정도’의 추운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이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03. 정답 X

화자는 ‘너를 남기고 온’ 북쪽 고향을 떠올리며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 고향을 떠올리는 것을 통해 역설적 효과를 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역설적 효과는 표면적으로 모순이나 내면에 진리(화자 또는 작가나 말하고자 하는 것)를 내포하여 상황이 나 감정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이 작품에 없습니다.

04. 정답 O

‘너를 남기고 온’이라는 표현을 통해 ‘너’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를 통해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정답 O

수미상관은 시에서 앞 부분의 내용을 뒷 부분에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가 1연과 5연에서 반복되는 것을 통해 수미상관 구조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수미상관은 시의 구조를 안정되게 만들며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06. 정답 X

‘작은 마을’은 ‘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화물차’가 존재하는 고향의 모습으로 ‘복된 눈 내리는가’를 통해 화자가 ‘작은 마을’을 그리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06

이성부, 「누룩」

수특 문학 95P

01. X 02. O 03. O 04. O 05. X
06. O 07. X

01. 정답 X

누룩을 무력함에 부대끼는 존재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의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누룩을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누룩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통해 연대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02. 정답 O

‘연대’란 이을(련) + 띠(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즉 이는 하나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나’, ‘여럿이서도’, ‘함께’ 등의 표현에서 같은 고통을 견디고, 같은 목적을 이루려는 모습들을 보아 해당 선지는 적절합니다.

03. 정답 O

3연의 마지막 문장인 ‘춤도 되고 기쁨이 되고 해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라는 표현에서 기쁨과 죽음이 공존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는 희생을 통한 새로운 희망에 대한 기대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희생적 자세’가 드러난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04. 정답 O

‘화자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모습’은 ‘죽음’이 아니라 연대의식이 담긴 ‘춤’과 희망이 담긴 ‘해 솟는 얼굴’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긍정적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 솟는 얼굴’과 ‘춤’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05. 정답 X

1-3연 모두 설의적 표현이 존재하며, 표현 모두 누룩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연의 ‘알맞은 바람을 만나’, 2연에서 ‘여럿이서 찾음’, 3연에서 ‘덩달아서 함께 꿈’ 등의 표현 등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이는 ‘연대’를 표상하므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06. 정답 O

3연의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이라는 표현에서 으깨짐 이후의 좋은 물과 결합해야 한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선지라 할 수 있습니다.

07. 정답 X

1연 ‘바람’의 수식어가 ‘알맞은’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아 긍정적 시어이며, 누룩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알맞은 바람’을 만나야 하므로 ‘방해물’이란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07

신석정, 「그 먼 나라를 알아보니까」

수특 문학 98P

01. X 02. O 03. O 04. X 05. X
06. X 07. X 08. O

01. 정답 X

‘어머니’라고 대상을 호명하는 돈호법을 사용하였으나, 시인의 생각과 화자의 생각의 거리가 멀을 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2. 정답 O

2연, 3연, 6연, 9연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먼 나라’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라 할 수 있습니다.

03. 정답 O

‘어머니 /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아보니까’라는 두 행이 동일한 형태로 1, 5, 8연에 반복되었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04. 정답 X

명령문은 ‘-(어/아)라’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작품 내에는 그러한 형식이 드러난 문장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05. 정답 X

이 작품은 ‘어머니’에게 말 건네는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공격적 자세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06. 정답 X

작품에서 화자는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어머니께 그러한 곳을 알고 있는지 여쭙는 상황을 그리고 있지만, 과거에 대한 표현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 먼 나라를 고향으로 판정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이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07. 정답 X

적막감이란 쓸쓸할(적) + 고요할(막)의 결합으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작품 내에서 적막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상황’과 ‘쓸쓸한 감정’ 혹은 ‘고요한 분위기’를 동반해야 합니다. 하지만 화자는 먼 나라를 상상하며 어머니와 함께 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으므로 적막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먼 나라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의도는 3연의 생동감과 평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며, 화자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 ‘투영’이란 ‘쫄(투) + 그림자(영)’의 줄임말로, 우리가 특정 대상의 그림자를 보면 그 대상을 미루어 알 수 있듯, 시 속에서는 특정 대상을 투영하면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를 미루어

23

정진규, 「감자 먹는 사람들 - 삽질 소리」

수특 문학 119P

01. O 02. X 03. O 04. O 05. X

06. O 07. X 08. X

01. 정답 O

‘우리들’이라고 하면서 화자가 자신을 작품 표면에 드러내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02. 정답 X

‘삐걱거리는 저녁식탁’은 ‘불빛 흐린’과 함께 화자가 가난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제 간의 갈등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03. 정답 O

‘마디 굵은 식구들의 손’은 고된 노동에 시달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손 마디가 굵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시어들인 ‘흙을 파는 삽질 소리’와 연결시키면 노동으로 인해 굵어진 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된 노동은 삶의 고단함으로 연결할 수 있기에 적절한 선지입니다.

04. 정답 O

‘빗줄기’는 바깥에서 노동을 하는 식구들이 노동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으로 잠시나마 화자와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은 하루쯤 쉬어도 되리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정답 X

‘우리들은 타고난 사람들이었다’는 삽질을 하는 고된 노동을 숙명으로 받아드리는 태도가 나타난 부분입니다. ‘누구나 삽질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와 연결하여 화자와 가족들이 삽질을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노동으로(삽질 소리를 꿈에서도 들을 만큼) 삽질을 잘 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는 체념적 태도로 화자의 자족감과는 거리가 멀기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06. 정답 O

화자가 상황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부분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담담한 어조라는 것은 시상을 전개 할 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표현하는 것으로 이 작품에서 화자는 담담한 어조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7. 정답 X

식구들이 노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08. 정답 X

이 작품에서 화자가 자신과 식구들의 모습을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24

이용악, 「그리움」

수특 문학 255P

01. O 02. O 03. X 04. O 05. O

06. X 07. X

01. 정답 O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등 의문형 어미를 통해 화자가 고향을 그리워 하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운문 문학에서 의문형 어미의 사용은 질문의 의미보다는 화자의 생각이나 정서를 강조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정답 O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서 ‘밤’이라는 어둠운 이미지와 ‘잉크병이 얼 정도’의 추운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이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03. 정답 X

화자는 ‘너를 남기고 온’ 북쪽 고향을 떠올리며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 고향을 떠올리는 것을 통해 역설적 효과를 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역설적 효과는 표면적으로 모순이나 내면에 진리(화자 또는 작가나 말하고자 하는 것)를 내포하여 상황이 나 감정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이 작품에 없습니다.

04. 정답 O

‘너를 남기고 온’이라는 표현을 통해 ‘너’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를 통해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정답 O

수미상관은 시에서 앞 부분의 내용을 뒷 부분에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가 1연과 5연에서 반복되는 것을 통해 수미상관 구조가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수미상관은 시의 구조를 안정되게 만들며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06. 정답 X

‘작은 마을’은 ‘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어 달리는 화물차’가 존재하는 고향의 모습으로 ‘복된 눈 내리는가’를 통해 화자가 ‘작은 마을’을 그리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 정답 O

물길이 흐르고 강 마을로 이어지는 것은 수평적 확장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11. 정답 O

하늘은 상승의 이미지이며 산 바위 우의 하늘이므로 수직적 구조와 연관이 깊습니다. 흘러가는 물길은 수평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해당 선지는 적절합니다.

16 | 광재구, 「전장포 아리랑」
수특 문학 110P

01. O	02. O	03. X	04. O	05. O
06. O	07. X	08. O	09. O	

01. 정답 O

전장포 앞바다에 떠있는 '눈물방울'은 섬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시구이므로 적절합니다.

02. 정답 O

'전장포'라는 구체적 지명을 사용하여 현장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03. 정답 X

'못나고 뒤엉킨'은 서민들의 서러운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는 소재의 표현일 뿐 이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04. 정답 O

'섬'을 '눈물방울'과 '설움'으로 드러낸 것은 '우리나라의 사랑들'의 삶이 자그맣고 슬프기 때문입니다. 자그맣다는 것은 작고 약함을 드러내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합니다.

05. 정답 O

특정한 종결 어미인 '-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06. 정답 O

'한'이란 자신의 욕망에 대한 결핍으로 탄생하는 감정입니다.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함께하지 못한다면 한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리랑'은 '한'의 정서를 환기하는 대표적 소재이며, 이를 부르는 화자는 이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07. 정답 X

나리꽃을 꺾는 것은 섬 그늘에 띄워 연민의 대상에게 위로하려는 마음가짐이 내포된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

는 회의적 인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08. 정답 O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웬 눈물 방울 이리 많은지'와 '아리랑 전장포 앞바다에 웬 설움 이리 많은지'가 유사한 구조를 형성하여 안정감을 주므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09. 정답 O

눈물 방울, 우리나라 사랑들, 앓은뱅이 섬들로 시적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17 | 박목월, 「나그네」
수특 문학 111P

01. O	02. O	03. O	04. X	05. X
06. O	07. X			

01. 정답 O

2연과 5연에서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네'라는 표현이 반복되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합니다.

02. 정답 O

'구름에 달 가듯이'라는 직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03. 정답 O

전체적으로 명사로 종결하여 서술어를 제한적으로 사용했으며, 이러한 문학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시적긴장감'이란 시적인 표현을 통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긴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04. 정답 X

술 익는 마을은 후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으나, 세속적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달 가듯 유유자적한 나그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05. 정답 X

영탄적 표현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06. 정답 O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만 보았을 때에도 3음보 율격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자 수를 세어보면 '3/3/4// 3/4/5//' 방식으로 반복되므로 7·5조의 3음보 율격으로 전통적 서정을 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4

신경림, 「고향길」

수특 문학 107P

01. O 02. O 03. X 04. O 05. X
06. X 07. O 08. X

01. 정답 O
1행, 7행, 8행, 10행, 12행, 14행, 18행의 종결 어미가 '-네'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반복 사용 리듬감을 형성하므로 적절합니다.
02. 정답 O
시적화자는 떠나기 전 고향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03. 정답 X
시적화자는 요란한 옛장수가 되어 고향의 '노을길'을 서성이고자 합니다. 즉, 이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04. 정답 O
화자는 자신의 추억에 남아있는 과거 고향 모습을 언급하면서도 그 곳을 피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 추억을 그대로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라 추측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05. 정답 X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고향이 탈바꿈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06. 정답 X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어릴 적 추억이 훼손될까 두려워 자신의 옛 기억의 장소들을 피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무신 집 딸아이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07. 정답 O
'뿔마루', '두레박', '우물 물' 등의 소재는 토속적인 소재이고 향토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므로 적절합니다.
08. 정답 X
화자는 어릴 적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지, 현재의 변화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5

조지훈, 「완화삼 - 목월에게」

수특 문학 110P

01. O 02. X 03. O 04. O 05. O
06. O 07. O 08. X 09. O 10. O
11. O

01. 정답 O
칠백 리는 실제 거리가 아닌 아득한 심리적 거리감을 표상하므로 적절합니다.
02. 정답 X
물길이 흐르고 강 마을로 이어지는 것은 수직이 아닌, 수평적 확장구조를 이루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03. 정답 O
1연의 '산새가 구슬피 울음 운다.' 표현에서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환기란, 부를(환) + 일으킬(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로 특정한 감정이나 생각을 불러일으킬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04. 정답 O
1연에서 '산, 바위, 하늘'등을 바라 보았고 나아가 산새의 울음 소리를 들었으므로 해당 선지는 적절합니다.
05. 정답 O
1연에서 '차운산'에서 촉각적 이미지를, 구슬피 울음운다'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느낄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06. 정답 O
'술 익는 강마을'이라는 소재에서 향토적 속성이 부각되므로 적절합니다.
07. 정답 O
'차운 산/ 바위 위에 / 하늘은 멀어'등의 표현부터 3음보의 운율이 지배적으로 사용되어 시가 전개되었으므로 적절합니다.
08. 정답 X
'꽃이 지는 것'은 오히려 하강적 이미지입니다. 나아가 꽃에 대한 상세한 묘사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09. 정답 O
각 연이 2행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통일감, 균형감을 줄 수 있지요. 따라서 적절한 선지입니다.

01

윤동주, 「또 다른 고향」

수완 문학 98P

01. O 02. X 03. X 04. X 05. O

01. 정답 O

또 다른 고향이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이다. '아름다운 고향에 가자'라는 표현을 통해 '아름다운 고향'을 지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2. 정답 X

백골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아가 아니다. 백골 몰래 떠나자는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03. 정답 X

백골과 아름다운 혼이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골을 등지고 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다.

04. 정답 X

개는 나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므로 부정적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 의미를 지닌 대상이다.

05. 정답 O

'가자'의 반복을 통해 백골 몰래 또 다른 고향에 가고자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02

서정주, 「추천사」

수완 문학 98P

01. X 02. X 03. O 04. O 05. O
06. X 07. X

01. 정답 X

시적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일 뿐 향단의 마음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02. 정답 X

나비와 풀꽃으로부터 벗어나 하늘로 가는 것이기에 화자의 지향과 관련이 없다.

03. 정답 O

달은 서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와 달리 화자는 가지 못하므로 대비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04. 정답 O

지향점에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4연), 다시 밀어달라는 것(5연)은 한계에 대한 주관적 극복으로 볼 수 있다.

05. 정답 O

'먼'을 '머먼'이라고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시적 허용을 통해 글자수를 조정함으로써 운율감을 조성할 수 있다.

06. 정답 X

실제 대화가 아니라, 말을 건네는 방식일 뿐이다.

07. 정답 X

달이 자신의 지향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화자가 달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다.

03

장만영, 「달 · 포도 · 잎사귀」

수완 문학 152P

01. O 02. O 03. O 04. O 05. X

01. 정답 O

'버려 우는 고풍한 뜰에', '달빛의 밀려'옴 등을 통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02. 정답 O

'달이 나의 뜰에 앉아있다'는 표현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03. 정답 O

3연에서 보면 푸른, 가을, 밤 등의 시어를 한 행에 배치하여 속도를 느리게 하고, 시적 대상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04. 정답 O

달 과일보다 향그럽다고 비교하였고, 동해 바다 물과 같은 밤을 통해 비유적으로 대상을 표현하였으므로 적합하다.

05. 정답 X

지문을 통해 알 수 없는 정보이며 호젓한 분위기일 뿐 안타까움이 직접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04 | 이성복, 「당신」
수완 문학 152P

01. X 02. X 03. O 04. X 05. X
06. X

01. 정답 X
경어체는 사용하였지만 그것이 화자와 당신의 생각의 거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02. 정답 X
얼어붙었다고 해서 화자의 정서가 말라 있는 것이 아니며, 얼어붙은 땅은, 시적 대상의 일이 고됨을 드러내는 소재일 뿐이다.
03. 정답 O
당신이 일하면서 찾은 것은 상처가 아니었냐며 대상의 상처와 고됨에 집중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목청을 다해 부르는 화자의 간절함은 결국 연민으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타당한 선지이다.
04. 정답 X
당신이 건져낸 것은 보람 없었던 한 생애가 아니었냐는 말은 그의 인생의 고됨과 어려움을 드러내는 구절이지만, 시적 화자의 살아온 인생과 대비되는지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

05. 정답 X
아기를 업고 일을 해야 할 정도로 노동의 고됨을 이야기하는 것 일 뿐 아이들의 시각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06. 정답 X
장화는 부정적 상황의 거부와 관련이 없고, 시에서도 부정적 상황의 거부는 나오지 않는다.

05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수완 문학 176P

01. O 02. X 03. O 04. O 05. O
06. O

01. 정답 O
‘찬란한 슬픔의 봄’을 통해 역설을, ‘나는 기다릴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을 통해 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시적 긴장을 높인다.

02. 정답 X
대상의 생멸에 집중하고 그것이 ‘나의 봄’을 구성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3. 정답 O
나의 봄을 기다린다는 것은 모란의 피고 짐에 따라 자신의 계절인 봄이 결정된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04. 정답 O
삼백 예순 날을 사용하여 기다림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다.
05. 정답 O
똑똑, 마냥, 비로소 등의 부사어를 통해 정서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06. 정답 O
첫 두 행과 마지막 두 행의 구절이 유사하고 이는 안정감을 줄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06 | 김소월, 「집 생각」
수완 문학 176P

01. X 02. O 03. X 04. X 05. X

01. 정답 X
객선이 화자의 마음이 향하는 공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객선을 통해 지향점을 더욱 생각나게 한다.
02. 정답 O
석양이 산머리를 넘어간다는 점에서 시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03. 정답 X
화자가 곧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기대감도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정답 X
까투리와 비슷한 처지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5. 정답 X
해와 달은 넘어갔지만 화자는 넘어가지 못하므로 해와 달은 넘어갔지만 화자는 넘어가지 못하므로 동일시한다고 볼 수 없고, 탈속적인 삶과 이 시 역시 관련이 없기에 적절하지 않다.